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거래고객
유일산업(주) 박승해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석암지점 거래고객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대표



IBK 기업은행

거나

나에게 딱맞춘
카드



이름만 보면
혜택을 알 수 있는

I.B.K카드

거나

비즈니스에 초점화된
카드



거나

남다른 삶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 본 광고는 신상인원번호002340181호0023401111유료기간(2024.01.10. - 현재)만을 위한 마케팅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IBK I.B.K카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다른 유리권행영행사입니다. 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신)에 추가 신청합니다. 고객센터: 02-725-7400, E-MAIL: IBKETH@IBK.CO.KR,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 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가가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 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먼저 할부하기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무효인 경우 연체금 보유, 개인 신용평가가 낮을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탈 시 30일 이내에 수취권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본 광고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p>04</p> 	<p>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p>
<p>72</p> 	<p>13 이달의 편지 '보컬학원에 등록하다' 외</p> <p>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유일산업(주) 박승해 대표</p>
<p>76</p> 	<p>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현 대표</p> <p>80 코너 속 편지 '우리 딸 은서' 외</p> <p>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기쁜 소식</p> <p>113 김일종의 스튜디오에서 2024년을 맞이하여</p>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종 **프로듀서** 안정민, 양지안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릉도 98.5

특 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한 쪽을 향해 두고 싶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들보다 가까운 그분들

김은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날마다 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오늘은 독길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추울까 봐 중무장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 햇살이 따사로우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독길로 가기 위해서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늘 다니는 곳이라 신호가 바뀌는 순서를 알기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뛰면 저 정도쯤이야 건널 수 있지!’

혼자 시간을 계산하며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내 건너야 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 불이 되고 숫자가 금방 17, 16, 15, 14, 13으로 바뀌더군요. 아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조금 불안해졌어요. ‘다음 신호에 갈까? 그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저 정도쯤이야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가 보자!’하고는 뛰었습니다. 뛰어봤자 걷는 것과 그다지 차이도 없는데 아무튼 뛰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꼬였는지 아니면 뒤통에 걸렸는지 ‘아차~’ 하는 순간 제 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더군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 창피하다. 사거리라 모든 방향의 차들이 다 나를 볼 텐데 조금만 이렇게 엎드려 있자. 얼굴은 안 보이잖아. 건너려는 사람이 이쪽도 저쪽도 없군. 다행이다.’

그러는 사이 차들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하늘을 보고 누우려고 몸을 살살 돌렸습니다. 그런데 ‘악~’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떨어지면서 제 팔이 몸에 깔렸고 그 바람에 오른쪽 가슴 옆과 옆구리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더군요. 후회했습니다.

‘암전히 그냥 집에 있을걸. 바람 쐬러 나온 건데 심각하게 다쳤으면 어찌지? 정년퇴임하는 날까지는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길바닥에 누운 채로 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을 추슬러 천천히 일어서는데 중년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 두 분이 더 걸어요 십니다.

‘분명 행인이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지?’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119 불러 줄까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신호 대기 중에 제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을 보았나 봅니다. 걱정하시는 모습에 저는 참으로 놀랐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네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겠지요.”

“아이쿠, 여기 턱에 걸리셨나 보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진짜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묻더니 걱정하는 눈빛으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도 옆구리를 손으로 꼭 눌러 통증을 줄이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괜찮으세요? 차 안에서 봤어요. 걱정되어서요” 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니 위로가 되고 덜 아픈 것 같아요.”

아들 또래인 청년의 맑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쓰라려서 보니 조금 까졌네요. 다행히 흠만 묻은 옷을 털며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돕겠지. 연세 드신 분들은 함부로 돕는 거 아니라던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교통 불편한 곳에 살 때 오가며 어르신들을 태워드리곤 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타고 내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해서 다치시면 난감해진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라며 말리곤 했거든요.

그러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옆방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 넘어졌어. 아파!>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물음표가 든 이모티콘을 보내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은 괜찮으냐고 가던 길 멈추고 달려와 들여다봐 주는데 아들놈이 제 방으로 건너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방과 저 방 사이가 참 멍니다. ‘어제 큰 시험을 보고 난 후라 탈진해서 그렇겠지’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꽤 씁한 건 꽤 씁한 거네요.

마음 따듯했던 날

애청자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길에 여성시대 들으며 웃고 울고 위로받고 그렇게 인생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인사드릴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토요일 건대입구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 건물이 아닌 바로 옆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출차하려는데 뒤따라오는 차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다 보니 멤버십 건물인 관계로 방문 차량은 지하 6층에 주차하라는 안내가 보였습니다. 마침 주차 자리도 넉넉하고 ‘옆 건물인데 뭐 1층으로 가서 걸어가면 되지. 약속 장소 건물은 이 시간에 주차하기 힘들 텐데 잘됐네’라는 생각으로 지하 6층에 주차했습니다.

내리려고 차 문을 열었더니 공사하는 중인지 페인트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도 “악~ 냄새!” 이러기에 “공사 하나 봐. 엘리베이터까지 뛰어가자” 이라고 아이 손을 잡고 후다닥 뛰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금방 탔는데 아이가 “엄마, 냄새 고약해”라고 말하길래 “괜찮아. 그럼 코 막아” 이랬는데 아이가 “나 토할 것 같아” 말하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아침에 먹은 것들을 다 토해버렸어요. 차멀미를 했는데 역한 냄새

까지 말아서 그랬나 봐요.

순간 두 손을 모아 아이 입 앞에 받쳤는데 토사물이 넘쳐서 옷, 안고 있던 인형, 신발에도 튀고, 엘리베이터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계속 토하고, 전 양손 토사물을 가득 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목적지인 1층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하고 있는데 함께 타고 있던 부부께서 “당황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계속 토하게 해요. 닦을 거는 있어요?” 물으시기에 “아뇨, 없어요” 했더니 손수건을 주시며 “이걸로 닦아요. 뭐 도와줄까요?” 그러시는 겁니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아이 외투를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3층 화장실까지 가져다주고 가셨어요.

화장실에 와서도 토하고 씻고를 몇 번 반복했는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께서 화장실에 오셨다가 저에게 “애기 엄마, 뭐 도와줄까요?” 하셔서 “네, 죄송한데 저 그럼 아이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토한 거 안내데스크에 말해야 해서요”라고 했더니 다른 분께서 “그건 이야기했으니 신경 쓰지 말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30분 넘게 화장실에서 울고 진정이 안 되니까 지나

가던 직원분이 오셔서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옆에 병원 있으니 가보세요” 알려주셨어요.

그 사이 지인이 왔는데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병원으로 같이 갔는데 토요일이라 이미 진료 마감했더라고요. 아이가 계속 우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늦게까지 진료 보는 근처 이비인후과를 알려주셨어요.

아이랑 부랴부랴 건너편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대기 환자가 많았습니다.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니 먼저 진료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코로나 검사 트라우마 때문에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코 찌를까 봐 울고불고하는 아이 팔다리 붙잡고 입속만 겨우 보고 결국 코는 보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주차장이 있는 건너편으로 걸어가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또 영영 우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지쳐서 “괜찮아, 일어나” 이라고 아이 팔을 이끄니까 뒤에 걸어오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아가 넘어졌네. 일으켜줘야지” 하면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가, 많이 아프니? 괜찮아?” 이라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하고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는데 ‘세상엔 참 좋은 분들 많아. 아름다운 세상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살짝 또 냄새는 나는데 바닥 카펫은 말끔히 청소가 되어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아이 코에서 차에서 간식으로 먹었던 건자두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코를 막고 있어서 아이가 토하고도 불편해서 계속 울었나 봐요.

지나고 나서 보니 주차장 잘못 들어갔던 게 행운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어간 곳은 실버타운이었는데, 충분히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에도 먼저 손 내밀어 도움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수건 주신 분, 화장실에서 아이 잠깐 봐 주신 분, 병원 위치 알려주신 분, 아이 진료 당겨서 봐주신 분,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청소해 주신 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아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오늘 우리 도와주신 분들 많았지? 너무 감사하다 그치. 우리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랬더니, 아이가 “응, 행복한 날이야” 대답하더라고요.

비록 나의 몸은 너털너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참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양희은님께서 “잘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녹음해두고 힘들 때마다 듣고 싶어요. 선생님 목소리의 그 묵직함이 큰 위로가 되거든요.

<여성시대 문자 모음>

[2826] 버스 타러 가다 그만 다리가 꼬여 넘어졌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고관절 골절이 아닌 요추 3번 골절로 12주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아찔한데, 휴가라 생각하고 꼭 쉬어야겠어요. 당당이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2644] 저는 전기 일을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다른 집은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정작 우리 집은 신경을 하나도 못 썼네요.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신발장 센서등을 바꿔 보았습니다. 주황색과 원화이트 색을 넣어보았는데, 아내가 좋아할까요?

[6299] 저희는 오늘 배드민턴 전국대회 출전합니다. 긴장하며 시합을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세 자매가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매일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전신운동에 게임을 하는 거라 이기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뛰게 되죠. 저희 세 자매가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4681] 우째 이런 일야...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려고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면서 한 시간 이상을 썼는데 마지막에 등록하기 버튼을 안 눌러서 다 지워졌네요. 다시 쓰려니까 힘들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8829] 회사 다닌 지 8년 만에 이번에 첫 보너스가 나와요. 요즘 경조사들도 많았고 오른 물가에 부담스러워 소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다행히 보너스가 나와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었습니다. 바쁜 연말연시를 보냈는데 다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축하해주세요.

[3956] 오늘 저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가상화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여성시대에서 보이스피싱 전화 관련된 사연을 들었던 터라 확인해 본다고 하고 182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보이스피싱이 맞더라고요. 여성시대 덕분에 보이스피싱 안 당했네요. 감사합니다.



- 14 보컬학원에 등록하다
- 18 중고 거래의 소소한 행복들
- 21 러시아어 공부
- 24 신의 한 수
- 28 고아들한테 밥 얻어먹다
- 31 엄마의 마음
- 34 한 겨울밤의 꿈
- 37 최고의 갱년기 치료제
- 40 사랑의 밥 대접하기
- 44 멋쟁이 마도로스
- 47 사랑의 호떡
- 50 대물림 된 알코올 중독
- 54 나는 호스피스 봉사자
- 58 치약, 남편을 추억하다
- 61 택시 적금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보컬학원에 등록하다

정수정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여 성시대 애청자님, 혹시 콤플렉스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나한테는 뛰어넘기 힘든 큰 장벽 같은 ‘이건 절대 못할 거 같아’ 하는 것들이요. 저는 지독한 음치, 박치로 노래 부르기가 마흔여덟 제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저의 음치 역사는 유구해서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기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초등학교 시절은 물론 중학교 합창대회 때는 맨 뒷줄에서 입 모양만 빙긋빙긋 해야 했고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게 노래를 시키셨는데 반 애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죠. 대학교 때도 직장에서도 노래방 자리는 스트레스 그 자체였죠. 대학원 시절 존경했던 교수님 앞에서 음정 박자 다 틀리며 노래 부르는 순간, 그 점잖은 교수님이 배를 잡고 웃으며 소파에 데굴데굴 구르시던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음치 탈출을 위한 큰 결심으로 보컬학원에 등

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큰 콤플렉스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수영, 영어, 노래 부르기였죠. 물 공포증이 심해 수영을 못했고 외국인 앞에서는 영어 울렁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고의 노력 끝에 네 가지 수영법을 구사할 수 있고요. 영어도 큰 불편함 없이 혼자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외국인 앞에서 울렁증도 없어졌습니다.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런 경험이 쌓이자 마지막 콤플렉스인 노래 부르기도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가 24년 다녔던 직장을 작년엔 조기퇴직하게 되어 여유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보컬학원은 주 1회 1시간씩 배우는데 제 보컬 선생님은 20대의 젊은 여자분이십니다. 학원 이용자 대부분이 실용 음악을 준비하는 어린 학생들이더군요. 저녁에는 저 같은 음치 탈출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몇 분 더 계시다고 해서 반갑더라고요.

첫날 제가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부르라며 음치 테스트를 했는데 의외로 선생님이 ‘음치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정이나 박자가 나쁘지 않다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음치, 박치로 알고 살았는데 제가 음치, 박치가 아니라니!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이랑 고등학생인 딸에게 자랑을 했지요.

“나 음치가 아니래!”

학원에 등록하고 처음에는 성대의 생김새나 소리가 나오는 원리, 제 목소리 상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노래는 ‘소리 반 공기 반’ 뭐 이런 말을 들은 거 같기도 한데 노래 부를 때는 목 근육으로 쥐어짜며 부르는 게 아니라 공기의 흐름, 호흡을 이용해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첫 연습곡은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입니다.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로 시작하는데요. '널 처음~' 세 글자만 몇 번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음정, 소리의 세기, 호흡 등 한두 소절만 한 시간 내내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시간 수업 마치고 자동차 안에서 다시 한 시간 정도 노래 부르며 복습도 하고 주중에도 학원 가기 전에 몇 번씩 연습했는데도 실력은 제자리였습니다.

보컬 선생님은 저같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박자와 음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훈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하지만 몇 달이 넘어가도 좀체 실력이 늘지 않으니 좀 지쳐가더군요. 원래 한 달에 한 곡씩 떼는데 저는 같은 곡만 네 달째 불렀지요.

어느 날 저녀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하고 부르면 딸이 너무 못 불려서 듣기 싫다며 노래 연습도 노래 실력을 키운 다음에 하라고 하더군요. 노래 실력을 키우려고 노래 연습을 하는 건데 딸이 야속했지만 참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제가 노래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노래를 정말 잘 부릅니다. 콩각지 낀 제 눈엔 왜 가수를 안 하고 직장을 다니나 할 정도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그 실력이면 전국노래자랑은 다 나갔을 건데 왜 안 나가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노래 실력자인 남편이 "당신, 그렇게 한 소절 한 소절 연습할 단계가 아닌 거 같아. 우선 노래를 엄청 많이 들어봐야 해. 여기서 엄청은 몇 번 몇 십번이 아니야. 백번도 넘게, 그냥 탄일 하면서 건성으로 듣는 거 말고 이어폰 꽂고 가수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노래를 완전히 익히고 나서 따라 불러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남편도 노래를 그렇게 제대로 익히고 연습을 하는구나. 제가 한 연습은 제 기준에서 많이 했다

는 거지 정말 많이 연습한 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조언을 들은 이후 저는 노래를 이어폰 꽂고 집중해서 듣고 또 들으며 익히고 부르고 또 부르며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매번 노래 부를 때마다 반 박자 놓치고 들어가던 부분, 음정 계속 틀리던 실수도 없이 딱딱 제대로 불러졌습니다.

노래 가사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이런 대목이 저와 남편의 연애 시절이 생각나서 참 좋습니다. 제가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부르면 딸이 어느샌가 뒷부분을 따라 부르며 흥얼거립니다. “구십구년 일월 삼십일일~” 하면서요. 그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쁜지요. 딸한테 “엄마 실력 늘었어? 늘었지?” 하면 “늘긴 늘었네, 그래도 못 불러” 그러는 거 있지요. 아직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노래방에서 부를 노래라고 제 나름 갖고 있는 곡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 가사만 겨우 외울 정도였지 제대로 아는 곡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노래 하나에 가사, 음정, 박자, 발음까지 훨씬 많이 연습하고 특히 보컬학원에서 배우는 발성 연습까지 쌓이니 노래에 자신감이 조금씩 붙더군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영어도 듣기 정도로 아는 것과 말하는 정도로 실력이 있는 것은 다르듯이 제가 노래를 안다고 하는 것과 노래를 부를 정도로 아는 것은 다르더군요. 수영, 영어, 노래 부르기 결국 모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여 연습에 또 연습하고 용기를 내어 실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세 가지 콤플렉스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난 평생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여성시대 청취자분들도 모두 느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Letter 02

중고 거래의 소소한 행복들

애청자

저 의 첫 중고 거래는 우리 아이들의 전집 구매였습니다. 자연 관 찰책 전집을 사주려고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던지 놀란 마음에 좀 더 저렴한 곳을 찾다가 지역 카페에 올라온 똑같은 구성의 중고 책을 보고 얼른 구매했지요. 파는 분도 ‘아이들이 잘 읽지를 않아서 책 상태가 괜찮아요’ 하셨는데 집에 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책 상태가 어찌나 좋던지 새 책 가격의 절반에 착한 가격으로 구매했으니 제 현명한 소비에 아주 만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책장에 한 권 한 권 꽂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작아져서 필요가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몇 번 입혀 보지 못한 상태 좋은 점퍼와 패딩 조끼를 판매 글로 올렸어요. <아이들은 금방 크니 한 해 입히기엔 괜찮으실 거예요>라고 올린 글에 어떤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혼자서 손주를 돌보

고 계시다고, <우리 손주 입히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구매를 원하셨어요. 짧은 한 문장에서도 혼자 아이를 보살피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 혹시 손주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괜찮으시면 바지랑 티셔츠도 같이 좀 더 드리고 싶어서요>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 하시는 말씀에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저를 돌보셨던 외할머니도 생각나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 키워주신 친정 엄마도 생각나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도 오히려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들 입던 옷 중에 작아서 못 입지만 상태 좋은 옷들이 꽤 있거든요. 같이 챙겨 놓을게요> 말씀드리고, 저희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후 급하게 옷장을 정리해서 혹시나 내가 못 살핀 색 바래은 없는지, 바지 무릎이 닳은 건 없는지, 하나 하나 챙겨서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판매하는 것보다 덤으로 주는 것이 더 많으며 미안해서 어찌 반냐고 하셨지만 드리는 제 마음이 더 편하고 기뻐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긴박한 중고 거래도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첫째아들이 축구를 어찌나 심하게 했는지 글썄 본인 운동화가 떨어져서 앞부분이 덜렁덜렁 구멍이 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 나는 몰랐는데. 구멍이 났어?” 하고 웃는 아들에게 “아이고~ 어쩐다니, 아들~ 무딘 너도 문제지만 너의 신발을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엄마가 더 미안해. 근데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 신발을 어떻게 구하지?”라며 밤늦게 혹시 문을 연 상점은 없는지, 새벽 배송으로 시킬 순 없는지 빠른 배송을 다 찾아봤지만 당장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는 쇼핑몰은 없었습니다.

“에휴 안되겠다. 내일은 집에 있는 신발 중에 작아도 아무거나 대충 구겨 신고 가. 엄마가 내일 바로 사놓을게”라고 말은 했지만 당장 내일 체육 시간이 있다는 아들. 발이 아플 텐데 걱정하던 중에 참참! 하며 떠오른 것이 바로 중고 마켓.

곧장 검색했더니 마침 아이 발 사이즈에 딱 맞는 상태 좋고 깨끗한 운동화를 어느 분이 판매한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 이랑 10분쯤 되는 곳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급하게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내일 이른 아침에 운동화를 좀 받으러 가도 되겠냐 구구절절 사연을 적었더니 그 고마운 판매자 분께서는 아침 일찍 오셔도 되고 바쁜 시간에 늦어질 수 있으니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입구 쪽에 운동화를 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돌리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편한 장소를 잡아서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분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마지막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남겨주신 판매자님 글에 저는 진심으로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라고 얼른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시간에 달려 나갔던 엄마의 아침 해프닝도 모른 채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 운동화를 본 우리 아들은 “어? 아침에도 운동화를 팔아? 역시 좋은 세상이네~” 하며 운동화를 신고 신나게 학교에 갔습니다. 정신없는 아침을 보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는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도 해소하고 저렴하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매력은 이웃 간의 정과 사람 간의 따뜻한 훈기를 느끼게 해줘서 저는 그 점이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Letter 03

러시아어 공부

애청자

내젠 과외선생님이 네 분 계신다. 첫 번째는 7살 때 한글을 가르쳐준 넷째 언니, 두 번째는 중1 때 영어를 가르쳐준 둘째 언니, 세 번째는 중1 때 수학을 가르쳐준 셋째 언니, 네 번째는 현재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회상해 보면 넷째 언니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놀면서 노래와 율동을 곁들여 가르쳐줘서 참 재밌었다. 셋째 언니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정말 쉬운 풀이법으로 가르쳐줘서 수학 점수를 높여주었고, 둘째 언니는 영어 문법 하나 가르쳐줄 때마다 적당한 예를 들어 가르쳐줘서 이해가 쉬웠다. 나의 딸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선생님답게 훌륭한 발음으로 나를 친절하고 편안하게 가르쳐준다. 나는 인복이 많은가 보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은 그동안 과외선생님들을 잘 만난



덕이니까 말이다.

과거와 현재, 조금 바뀐 게 있다면 과외 장소와 먹을거리다. 그 옛날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등근 밥상을 놓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큰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공부한다. 그 옛날엔 엄마가 준비해 주신 과일이나 식혜를 먹고 마셨는데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와 빵을 내가 사서 먹고 마신다. 그것도 아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 외국어 과외 받으려면 시간당 꽤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나는 간단한 음료와 빵만 내고 수업을 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복습, 예습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노력 또 노력하려 한다.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잠깐 잠이 깬는데 어제 처음 배운 러시아어 자음, 모음을 복습했다. 단어 몇 개도 같이 복습했는데 꽤 재밌다.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추가로 영어도 가르쳐달라고 할까?' 작은 욕심을 부려본다.

딸은 말한다.

“내가 엄마한테 러시아어를 가르치다니!”

나도 의외다.

“내가 러시아어를 배운다니!”

러시아어는 참 어렵다. 인쇄체, 필기체 대·소문자도 영어와 다르다. 에펠탑처럼 생긴 글자, 올챙이 꼬리처럼 생긴 글자, ㄱ을 옆으로 아무렇게나 흘려서 쓴 듯한 글자… 거의 그림 그리듯 써보며 외우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러시아어는 모음 10개, 부호 2개, 자음 21개로 구성된다. 발음도 뒤죽박죽 어렵다. ㄱ을 거꾸로 해놓은 글자는 ‘게’로, 숫자 3처럼 생긴 글자는 ‘제’로 발음한다. 또 영어와 러시아어가 혼동되는 글자도 있는데, 영어 소문자 g처럼 생겼는데 ‘데’로, 영어 대문자 N처럼 생긴 글자는 ‘이’로, 영어 대문자 H처럼 생긴 글자는 ‘엔’으로 발음한다. 첫 수업은 러시아어 자모 16개를 배웠는데, 갈 길이 멀다.

이번 주 목요일은 두 번째 수업 받는 날이다. 원래 주말에 배우려고 했는데 김장하느라 늦추었다. 딸한테 배우니 긴장도 안 되고 부담이 없어 좋다. 정신적인 손실과 금전적인 손실도 없다.

과제는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대·소문자 10번, 해당되는 단어 10번. 예쁘게 정성껏 써야지. 단어 시험도 본다고 했으니 100점 맞아야지. 복습 잘해서 좋은 점수 받아야 딸이 열심히 가르쳐줄 것 같다.

우리 딸, 열심히 가르쳐 줘서 고마워. 나도 열공할게. 딸아, 나는 요즘 거의 매일 새벽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공부했어. 오늘도 더 잠가고 싶는데 일어났거든. 하지만 전등 차단기가 내려가는 바람에 어두워서 공부는 못했어. 대신 여성시대에 사연 보낸다. 사연 소개되면 엄마가 맛있는 밥 사줄게.

Letter 04

신의 한 수

손수진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며 칠 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친자매처럼 지내는 50년지기 동생 은주한테 문자가 와 있는데 아버지 부고 문자였어요. ‘어? 은주네 아버님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 클릭하면 열리는 부고 링크가 있더라고요. 순간 몇 년 전 제가 아프게 경험한 일이 스쳐 지나가서 빛의 속도로 동생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언니야! 언니도 문자 받고 전화하는 거제?”

“은주야, 니 해킹당했제?”

“언니야, 그거 클릭하면 안 되는데 언니 클릭했나?”

“아니. 나는 클릭 안 했고, 요즘 해킹은 휴대폰이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엮이면 큰일난다. 당장 112로 전화해라. 언니가 몇 년 전에 이런 거 당했다 아니까. 그때 언니는 금융 거래를 휴대폰으로 하지 않

아서 금융 피해는 없었는데, 나는 폰하고 금융이 연결되어 있제?”

“설마 이런 이른 시간에?”

“이른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어서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니도 부고 문자 받아서 클릭했더니만 폰이 해킹당해서 니 폰으로 니 지인들한테 허위부고 문자가 보내진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라고~.”

몇 년 전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지연된다고 링크를 클릭하려고 해서 했더니 그 사이트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무슨 문자를 이렇게 폭탄으로 보내요?”

남자분이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문자 보낸 적 없는 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고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죠. 조금 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한 할아버지가 “왜 문자를 이렇게 여러 통이나 보내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문자 보낸 게 없는데요?”

“당신 휴대폰 번호로 투자하라는 폭탄문자가 왔는데 몰라요?”

그때 아차 싶었죠. 그 이후에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더니 제 휴대폰 번호로 폭탄문자 받은 분들의 항의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자 몇 십 통이 한꺼번에 보내졌더라고요.

그 길로 휴대폰 센터에 가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는데 하루 지나니 또 문자가 가서 또 초기화 하고 그걸 세 번 했나 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 한 6개월 지났나 064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도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부 형사 아무개입니다. 손수진 씨가 모월 모일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권을 120장 구입하셨는데 구입대금을 보낸 분이 보이스포싱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예? 경찰서라고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일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114를 통해 제주도 서부경찰서로 전화해 아무개 형사님을 찾으니까 아까 전화한 분에게 안심하고 통화했죠. 제가 해킹 당한 일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제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주도까지 못 내려가니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주셨는데 형사님과 1대 1로 마주앉아 물어보시는 내용에 열심히 답했고 형사님은 그 답을 영화에서처럼 키보드를 두드려 옮기셨어요.

저는 당시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서 해킹한 일당이 제 돈은 취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해서 갈취한 선량한 분들의 돈을 가지고 제 명의로 게임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샀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추적해서 명의자인 저를 알아냈지만 저도 피해자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조사 끝나고 나서 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융 거래가 연결되었으면 돈도 돈이지만 상황이 자칫 공범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동생이 당한 해킹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가 새 전화를 개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 언니야! 내, 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데이. 언니랑 전화 끊고 112에 전화했더니 은행시간 아닌데도 은행이랑 내랑 연결된 모든 금융 거래를 정지시켜 주대. 은행 거래가 정지되니까 해킹한 놈들이 열 받아서 내 폰을 벽돌폰으로 만들어 놔더라고. 완전 못쓰게 해놨어. 휴대폰 센터에 갔더니 해킹 당한 사람 중에 나처럼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은 처음 본대. 어떤 사람은 1억 몇 천만 원 피해를 입고 충격 받아서 119에 실려 갔대. 언니 덕분에 나는 큰 피해는 없고 쓰던 휴대폰 약정금액 물고 새 휴대폰 하느라 피해금이 150만 원 정도 되더라.”

며칠 뒤 동생에게 다시 전화하니 휴대폰 소액결제가 풀려서 30만 원 손해 봤다고, 면허증 신분증 다 재발급해서 은행 정지 풀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들이 내한테 문자 보낸 게 신의 한수다.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네 아버님이 도우신 거지.”

요즘 부고장 받고 클릭했다가 피해 입은 사건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니 당당이념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고장 링크가 있는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클릭하면 안돼요! 실수로 클릭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형사님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뒤통수치는 스미싱범들 싹 다 잡아주세요. 형사님들 파이팅!

Letter 05

고1 아들에게 밥 얻어먹다

오윤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1 아들은 요즘 부쩍 돈타령을 하면서 친구들은 직접 알바해서 용돈을 벌어서 쓴다고 알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데 뭘 굳이 빨리 하려고 해.”

반대를 했는데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허락을 했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집에서 자기 방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아들이 나가서 괜히 서러움 받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못하겠다고 중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허락했어요.

토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웨딩 뷔페에 일하러 갔어요. 걱정이 되어서 카톡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하루종일 걱정하며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아침 7시 30분에 나간 아들이 저녁 8시 40분 되어서야 전화를 했어요. 휴대폰 다 압수당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진짜 대박 힘들었다며 처음으로 신어본 구두가 너무 불편해서 발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는 등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정말 쏠살처럼 흘러갔다고 힘들었지만 할 만했는데 한동안은 안 가고 싶다고 다음에 가보는 건 생각해봐야겠다고, 말 없던 아들이 어찌나 수다를 떠는지 웃음이 났어요.

같이 간 친구들과는 일하는 곳이 다르고 퇴근 시간이 달라서 혼자 온다는 말에 걱정되어서 “데리러 갈까?” 했더니 괜찮다고 잘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엄마 닮아 길치인 아들이 걱정되고, 또 오늘 하루 힘들었을 아들을 위해 계양역까지 마중나갔어요.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한걸음에 달려갔네요. 차안에서도 폭풍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본인 스스로 내심 뿌듯한 듯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중간에 못하겠다고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했네.”

“아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데 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에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 잘 견디고 일하고 왔다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었어요. 저도 일하다가 중간에 그냥 말없이 가는 사람들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더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첫 스타트를 책임감 있게 잘 해결한 아들이 고맙고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은 나약하지 않구나. 집에서만 내 앞에서만 애기지 책임감 있게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갑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이 씻고 나서 발 아프다고 하니 신랑은 아들의 아

픈 발에 파스를 뿌려주면서 주물러주고 저는 몸살 날까 봐 아들에게 약을 건네서 입에 넣어주고 물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바하고 온 우리 아들은 그날은 왕자님이 따로 없었어요. 신랑과 저는 자식이 똬지 공연히 애달파서 그저 덜 힘들게 해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다음날 날씨도 쌀쌀하고 순대국이 먹고 싶어서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잡으면서 “엄마,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아들. 아빠 엄마가 계산하면 돼.”

“첫 월급은 아니지만 첫 알바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밥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알바하게 되면 열심히 돈 모을게요.”

아들이 처음 번 돈으로 얻어먹은 밥. 새롭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벌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 아들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순대국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줘서 그런지 더 맛있고 든든했던 거 같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음을 몸으로 느낀 아들이 앞으로는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했음 하는 바람을 가져 보네요.

저, 고1 아들에게 밥 얻어먹은 엄마랍니다.

Letter 06

엄마의 마음

유현숙 | 전북 군산시 문화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키는 185가 넘어도 엄마 눈엔 아이로만 보이는 아들입니다. 형이 씩씩 자전거 잘 타는 것이 부러웠다면 서 한번 멋지게 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네요. 우리 부부가 시골 부모님 댁에 볼일 있어서 내려가 있던 지난 화요일 밤 11시경에 아들이 그만 집 앞 비탈길을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심하게 곤두박질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 녀석이... 조금...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에 가는 중이에요.”

지나가던 행인이 아들이 다쳐 쓰러져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보고 119를 부르고 형 전화번호도 눌러 전화도 해주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놀라 부랴부랴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은 새벽녘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혀가 상하고 윗니 세 개가 그대로 부러져 어디로 간 줄도 모르겠고

피투성이가 돼 연신 거즈로 닦아내고 있던 큰아들이 우리 부부가 도착하니 그제야 끼이끼이 울어대는 것이 어지간히 놀랐던가 봅니다.

문득 말입니다. 어려서 다쳤던 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열 살 때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을 세 번 옮기면서 결국은 장기 하나를 적출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여섯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과연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엄마가 될 수가 있을까. 어머니는 긴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딸이 눈을 뜨자마자 해바라기처럼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셨지요.

“우리 숙이가 사고가 났지.”

저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다쳤구나. 그런데 별 사고가 아니었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아프고 세 군데로 나뉘어서 박힌 고무 튜브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콧속으로 한 줄, 가슴팍으로 한 줄, 옆구리로 한 줄. 그리고 웬지 다리는 옥신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는 이동도서관의 만화책을 빌려서 조곤 조곤 제게 읽어주셨습니다. ‘아~ 나 별로 안 다쳤지. 안 아프지...’ 이런 마음으로 중환자실에서 무려 보름을 있었답니다. 겨우 중환자실을 빠져나와 일반 병실로 이동하고 나서야 하시던 말씀.

“아이고야~ 중환자실 나오니 살 것 같아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곁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도 봤어. 우리 딸은 몰랐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 번 다시 들어갈 곳이 아닌 데다.”

저는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무섭다니, 내가 그 무서운 곳에 있었나? 새삼 어머니가 대단하시다 싶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응급실에서 아들을 대면하였는데 어머니처럼 태연할 수가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 안에서 나온

나의 분신 같은 아들이 붉은 피를 쏟아내면서 눈을 감은 채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서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을 나와 치과로 이동하여서 검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들 앞니가 세 개가 부러지다 보니 통통 부은 얼굴인데도 한쪽으로 기운 듯한 그 치아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좀 나오겠네요.”

“상처가 남을까요?”

“아~ 그러면 피부과로 가시던가요.”

“드레싱은 어떡할까요?”

“스무 살이 넘었는데 그걸 혼자 못한답니까?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곳에서 육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말 대수롭지 않은 사고인가? 내가 호들갑을 떠는 건가? 싶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있다 보니 세상 불쌍하었어요. 되는 일이 없다면서, 나는 왜 이리 늘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입을 다물어버린 아들. 여전히 내게는 아이 같기만 한 아들의 마음속에 꼭꼭 들어가 버린 실망의 기운들이 얼른얼른 쑥쑥 빠지면 좋겠습니다.

더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남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척추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만하면 다행이라고, 이 일을 통해 아이가 더 큰마음을 갖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게 선물이고 행복인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의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비도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07

한 겨울밤의 꿈

김효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료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거기 현장에 일자리가 생겼다면 나를 추천한다. ‘요양 중인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반신반의 하면서 마침 돈도 필요한 시점이라 그러겠노라 대답했다.

광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기로 했다. 몇 번 버스를 갈아타고 부산 사상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광주 가는 고속버스를 간발의 차이로 놓쳐 버리고 마음은 급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괜히 한다고 했나?’ 불안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아는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새로운 향타기 장비를 조종해 달라고 한다.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장비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처럼 향타기 일을 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다”는 동생 말에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



을 했다.

그러다가 아내의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나는 여전히 온돌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고 모든 게 꿈이었던 것이다. 꿈이었지만 도전하는 열정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씩소가 나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열정과 도전 정신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하지만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어 뜬구름 잡느라 세월을 보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의 무게감을 느끼고 늦게 정신 차려 45세부터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며 51세까지 1년에 1~2개씩 취득하여 6개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 51세에 탄 '천공기 운전기능사 향타 향발기 자격증'이 운명 처럼 나의 적성과 맞았고, 2021년 2월에 아프기 전까지 전국을 누비며 건설 현장에서 과일 작업 또는 H빔 작업을 하며 뜻 맞는 동료들과 오늘의 '향타기 조종사 협회'도 만들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늦은 나이에 조종 기술을 배우려 해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 밑바닥부터 갖은 고생을 하며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히고 초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의 열정을 믿고 장비를 맡겨준 사람이 대성기초 김 사장이었다. 나보다 4살 적은 김 사장은 비록 초보였지만 나의 열정과 성실함을 믿었고 나는 그런 김 사장에게 초보인 나를 믿고 선택한 것에 대해 돈을 벌게 해 주리라 다짐하며 항타기 조종사일 외에도 거래처 관리, 영업, 인력 관리까지 도맡아하며 항타기 장비를 점점 늘려 5년 만에 1대에서 5대까지 늘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하고 수술을 받았다. 왼쪽 신장 전절제를 하고 누워 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앞으로의 생계와 이제 겨우 대학생인 두 딸의 공부도 다 못 시키고 아내를 두고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잘 아는 업종과 관련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 재산을 털어 빚을 내어 퇴원 후 아픈 몸을 이끌고 에어공구인 콤프레샤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 후 콤프레샤 임대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인사하고 노하우를 배우고 부탁도 드려서 이 사업도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고금리와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장비 임대도 뜸해지고 돈도 떼이고 미수금은 늘어나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비급여 항암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서 대안으로 자연치유를 하고자 이곳 화천에 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일들이 갑자기 잘 풀리고 있다. 미수금도 입금되고 놀고 있던 장비도 동료의 소개로 연락이 왔다. 좋은 기운이 찾아오니 내 마음은 벌써 겨울을 지나 봄으로 달려가고 있다.

Letter 08

최고의 갱년기 치료제

김선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49세의 애청자입니다. 2~3년 전부터 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은땀이 짝 나고서야 가라앉는 흔한 갱년기 증상이 한두 달간 그러다 말고 그러다 말고 하더니 지난해는 일 년 내내 그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한여름엔 혹 올라오면 화장이 다 망가지고 에어컨 바람도 소용없을 만큼 뜨거워져 옷이 흠뻑 젖기 일쑤였고 추운 요즘은 자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몸을 식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오돌오돌 떨며 다시 침대에 올라갑니다. 사무실에서도 히터를 켜다가 선풍기를 켜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갱년기라는 걸 듣기 싫어서 몰래몰래 켜다 껐다 하니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신체적인 건 정신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는 감정기복도 심해지고, 전에 없던 우울감과 불안감이 나를 괴롭혀서 만만한 남편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캐캐 묵은 과거

사건들이 새삼 떠올라 그 이야기를 꺼내어 남편과 다시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기에 여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갱년기이며 호르몬제를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긴 하나 과거 병력인 자궁내막증이 재발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어도 자궁내막증으로 개복 수술을 두 번이나 한터라 겁이 나서 약도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건강보조제 정도는 호르몬이 미미해서 먹어도 괜찮다 하여 보조제 가격을 알아보니 너무 고가에 다가 한 번 먹고 말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게 갱년기라 했던가요. 내 감정을 나도 주체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서러운 마음 되라고 내게 주문을 넣는 것 같게도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아무도 이런 증상이 없다는데 나에게는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억울했습니다. 엄마에게 여쭙보니 엄마도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하셨다 하네요. 갱년기도 유전이라면 나도 앞으로 7년가량 더 고생해야 하나 싶어 우울감이 더 커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울 마눌님 사랑해. 많이> 그렇게 특이 왔습니다. 아직도 동네에 갓 쓰고 다니는 어른이 게실 정도로 예스럽고 가부장적인 경북 안동 쪽이 고향인 남편은 평소 이런 말을 하면 헛바다에 두드러기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뜬금없어서 왜 갑자기 이러냐 하니 앞으로 매일 보내줄 거라네요. 저도 애교 많고 씩씩한 성격은 못되는지라 <웃기고 있네>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십이 다 되어 가는 아줌마가 아니라 뭔가 연애 중인 이십 대의 기분? 그래도 매일 보낼 거라는 말을 믿지는 않았습

니다. 아마 매일 보낸다면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는 방법을 배웠나 보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사랑해 여보.> 다음 날에도 <어제 내가 가고 싶어 한 찹질방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 사랑해. 마늘님> 다음 날에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해. 하늘만큼>, 한 달이 훌쩍 지난 오늘도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다 보니 저도 조금씩 간지러운 답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딸에게도 매일 보내나 봅니다. 하루는 딸이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냐고요. 처음엔 그러던 딸이 요새는 자기가 먼저 엄마 아빠한테 안부 메시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가끔 보내옵니다. 원래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아이였어요.

저를 위해서 취한 남편의 행동이었지만 본인에게도 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예전 같으면 굴뚝질이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으면 ‘뭐야, 먹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야?’ 하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일부러 가만뒀다가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소파로 데려가서 “이거 누구 보고 치우라고 여기에 둔거야?” 하며 따졌었는데요. 요즘은 ‘하늘만큼 사랑한다는데 이 정도 못치워 주겠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만은 안정감이 들어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남편분들, 아내의 갱년기 최고의 치료제는 호르몬제도 아니고 수백만 원 하는 건강보조제도 아니고 오직 남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내에게 최고의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늙으면 보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Letter 09

사랑의 밥 대접하기

심재남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저는 지역의 중학교 선후배 봉사활동 모임 ‘너나들이’의 일원인데 ‘너나들이’란 허물없이 토론하고 생각을 교류하자는 뜻을 담았지요.

2003년 가을 모임에서는 100분이 넘는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1일 자녀가 되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업 대표, 학교 선생님, 은행원, 자영업자, 회사원, 농사짓는 분, 도배장관 시공하는 분 등 다양한 직업군의 선후배들이 직장에서 일과 마치고 선배님 집에 모여 의논하노라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열정이 활화산처럼 불타올랐습니다. 나고 자란 고장의 외로운 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성인이 된 저희에게 개선장군 같은 자긍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행사는 ‘사랑의 밥 지어 대접하기’로 정하고, 자금, 장소 등 풀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르신 마음에 다가가기’였어요. 진심을 다 해 모시고, 호칭도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면 소재지 중앙의 주차장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한창때인 저희는 여유가 별로 없어 소요 자금이 우리 선후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일터에 취지를 공지하고 면 소재지가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동문들에게도 뜻을 알려 함께하자고 권했습니다.

상인회의 ‘종로보석’ 사장님은 이곳 출신이 아님에도 “이곳에서 수십 년 장사했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며 20만 원을 첫 번째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역을 떠난 선후배들도 소식을 듣고 3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찬조해 주셨습니다. 농사짓는 동문은 쌀과 농산물을 찬조하고 출신 중학교에서는 풍물단과 밴드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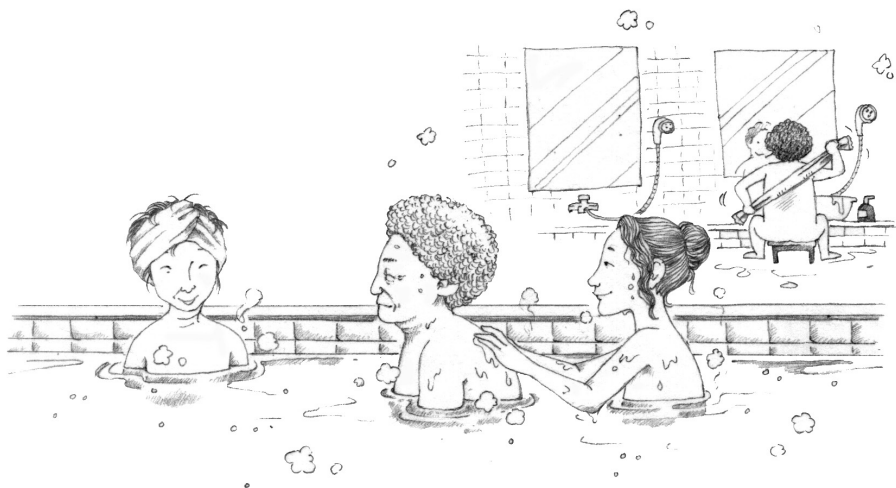
우리는 주변의 이런 반응에 흥분했고 기운이 절로 나서 자녀가 되어 한 분 한 분께 ‘부모님 전 상사’ 초대장도 썼습니다.

드디어 당일 선후배들은 오시는 어른들을 자리에 모시고 자녀처럼 큰절을 올리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 뒤쪽 가마솥에 밥을 짓고, 소고기뭇국이 펄펄 끓고, 김치 썰고, 고기는 폭 삶아 손으로 찢어 드시기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시절에는 쌀밥 먹기가 어려웠다 해서 밥은 흰쌀밥, 도토리묵, 백설기, 꿀떡, 홍어 무침에 해물과전을 연신 부쳐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제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으셨고 화장하신 얼굴이 고왔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더니 왈각 끌어안으며 이렇게 고운 말로 당신을 불러준 사람은 평생 처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분께 초대장을 쓴 사람이 저였는데 저는 외롭게



사셨을 어르신을 생각하며 할머니를 ‘예쁜 어머니’이라 부르며 편지를 썼는데 제 마음이 전해졌나 봅니다. 그분은 “남들은 원조나 받는 늙은이 취급을 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밴드와 풍물단이 공연하고 피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후배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잔치 마당을 마무리할 때는 어르신들 손에 떡과 누른 고기와 수건을 들어드렸습니다. 가실 때 연락처도 받아서 다음 봉사를 약속했지요.

그때 편지 받고 감동하신 어머니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쭙았습니

다. 그 어르신은 30대 후반에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도려냈으며 대중목욕탕에 가고 싶어도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시장 보러 가자며 차를 목욕탕 앞에 주차했습니다. 한사코 사양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대중탕에 들어가 탕에 같이 앉아 등도 밀어드리고 나와서 바나나우유도 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평범한 일상인데 어르신께서는 특별한 날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한 어르신 댁이 바람이 불면 혈거운 미달이문과 가림막이 덜컹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 보니 오래된 벽지와 낡은 장판에 부엌은 추워서 잠시도 있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대개는 가스레인지를 썼는데 그 댁은 석유곤로를 쓰셨습니다.

도배지와 장판은 장사하는 후배가 후원했고 나머지 재료들은 철물점 하는 선배와 공장하는 선배가 보태 7명씩 조를 짜서 이들을 예정하고 저희는 어르신 댁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닌지라 도배지가 구겨지고 부엌은 시멘트 배합을 잘못해서 좀 엉성했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커피 믹스를 마셔가며 손발이 시리고 콧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선배님 댁으로 가서 군고구마와 따뜻한 어묵탕으로 몸을 녹였지요.

우리는 하루의 추위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겨우내 추위에 떠실 어르신이 이젠 따뜻하시리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 후 자신감이 충만해진 저희는 어느 해에는 김장 김치 600포기를 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40대에 시작한 봉사활동은 돌아볼수록 소중한 추억이고 값진 일입니다.

Letter 10

멋쟁이 마도로스

신순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 주일 전부터 남편의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4~5개월 동안 지내야 하는 생활용품이지요. 평생토록 수없이 싸던 짐인데 이번에는 가방 하나가 늘었습니다. 약 가방입니다. 칠십 넘은 남편이 국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는데 5개월분 약이 쓰레기봉투 10리터만한 부피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톤급 유조선 선장이었는데 정년 퇴임 후 지금은 핀치히터로 작은 6천 톤 유조선 선장입니다. 20만 톤 이라면 아마 감이 안 잡힐 것 같아 잠시 소개하자면 건조 당시 세계 최대였다는 타이타닉호는 길이가 269m인데 제 남편은 그보다 세 배 되는 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길이는 약 350m쯤, 높이는 아파트 15층 정도이니 15층 아파트 2동을 합친 크기가 물살을 저으며 오대양을 건너다녔죠.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길보기에는 큰 집채만 하게 보

이지만 가까이 가면 얼마나 큰 지 한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도대체 이 크고 무거운 것이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떠있을까 궁금하답니다.

선장이 항해를 지시하는 선실에서 기관실까지는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려요. 기관실은 약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조이고 닦았는지 마치 상품 진열해 놓은 느낌입니다.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2명이 항해 담당이고,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2명, 기계를 담당하는 이들이 사관급 선원이고, 그 외 갑판원, 기관원, 주방요원 해서 25명 정도의 작은 왕국입니다. 사관급과 선원들은 식당도 분리되어 있는 철저한 계급 체계입니다. 사관급은 유럽 사람들이고 그 외는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공통어는 영어이고 식사는 양식에 가까운 퓨전이라고 합니다. 선장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옛날에는 선장의 지시가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토론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선장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항해 중 모든 일의 책임도 선장 몫이랍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메리디스 빅토리호(Meredith Victory) 선장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 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승선시킨 일은 선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을 내린 일이니 그 일을 연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울합니다. 남편이 칠십 넘어 일할 수 있음은 축복이라고 주위에서는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짐 싸는 남편 모습이 왠지 가슴 싸하게 시렵니다.

부산에서는 선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산다고 여기지요. 한데 저희는 제가 두 차례 사업으로 모든 것을 물 말아 버

렸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배를 땀기에 빗을 청산하고 2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남들처럼 노후 대책도 변변찮고 여유롭게 즐기며 살 수도 없으니 어디서든 부른다면 달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저 때문에 칠십 넘긴 나이에 그 힘든 일을 또 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염치없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나마 건강해서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지혈증이 찾아와 약을 보따리로 싸서 일하러 가니 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출국하기 전날이면 늘 와인 잔을 비우며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이번에는 와인 잔을 비우며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는 선원수첩을 반납하자고요. 남편은 가벼운 미소로 “헌데 자꾸 부르잖아~” 하며 우쭐해하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뱃길’을 ‘사자밥 싸가지고 떠나는 길’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 최첨단 장비에 과학적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육지보다 안전하다고도 하지만, 저승사자를 등에 업은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마다 노련한 선장들의 지혜로 헤쳐 나가야 하는 순간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만의 하나 판단력이 잠시 흐려져 실수한다면, 하고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하지 않던 생각인데 어디 나이 이길 장사 있겠어요? 물론 남편은 늘 하던 일이라 다 괜찮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대양을 내 집 안마당인 양 누비고 다녀서인지 마음도 바다같이 넓은 멋쟁이 마도로스 당신은 헛말 삼아서라도 저 때문에 힘들다는 푸념 한 번 하지 않으니 나는 당신 앞에 더더욱 죄인 같습니다. 당신한테 보답하는 길은 내가 건강해서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리는 일뿐이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적은 보탬이라도 되려고 시니어 클럽에 일자리도 신청했습니다. 마도로스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렵니다.”

Letter 11

사랑의 호떡

김영옥 | 충북 제천시 풍양로

충 충북도 제천시 중앙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김영옥, 김용자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2000년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호떡 장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잘 돼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손님들이 모여 들었어요. 하루에 밀가루 두 포씩 구워 팔았으니 대박이 난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호떡을 찾는 손님이 푹 떨어져 남은 반죽을 처리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죽은 무조건 굽기로 하고 팔리지 않으면 사랑의 집이나 시립복지원 평안의 집 등에 전화해서 가져다 드시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가게로 와서 가져 가셨는데 우리에게 남은 팔지 못한 호떡을 드시고도 매우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니 우리 부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는 호떡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즉석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전해 드리면 서로가 더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물차를 한 대 사서 호떡 차로 개조에서 전국 유람도 하고 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즉석에서 따끈따끈한 호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랑의 호떡 차입니다.

사랑의 호떡 차는 호떡 굽는 철판, 가스, 냉장고, 선풍기, 전기 유도선 등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고 전기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호떡을 구울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해 삼척 양양 인제 춘천은 물론이고 군부대까지 호떡을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봉사를 갔다 오면 늦은 장사를 했고요. 멀리 춘천이나 경상도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안동까지 가는 날은 삼일에서 한 달 반 동안 여인숙에서 잠자고 밥 사 먹어가면서 무료 봉사를 하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들인 돈이 한계가 있으니 대책을 세운 것이 인천 행이었습니다. 인천에는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를 하고 오후엔 늦은 장사를 해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적금 해지하고 금붙이 있던 거 다 팔아먹고 그렇게 봉사한 게 강릉에서 10년, 인천에서 10년.

그러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해서 봉사를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고 고향으로 내려와 놀다 보니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될까 두려워 다시 호떡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충북 제천이 낙점되어 중앙시장에 '사랑의 호떡'이라는 간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돈에 큰 욕심이 없어서 호떡 한 개당 500원에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은 물가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호떡

가격도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진짜 500원이나?’ ‘500원 받아서 뭐가 남느냐?’ ‘500원 받아서 가게 세는 낼 수 있냐?’ ‘너무 싸니 많이 못 사가겠다’ ‘천 원 아니면 3개 2천 원은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여러분들이 먹어 주시고 맛나다고 해주는 칭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예전에 하던 호떡 무료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파 아주 조금, 하루 30개를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경로당으로 무료 배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6천 개를 목표로 삼고요. 우리 부부가 20년 동안 해마다 약 3만 개 이상을 공짜로 나눴는데 1년에 6천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부부도 이제는 너무 늙었나 봅니다.

우리 마누라 나이가 51년생이니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니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행복이란 뭐 별거 있나요? 우리 부부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유지되니까 행복하고요. 오시는 손님이 많아서 행복하고요. 오시는 손님마다 맛있다고 칭찬해주니 행복하고요. 싸게 팔아서 최저임금도 안 되지만 이 나이에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래 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라고, 청년은 열정으로 살며,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백세 노인이라도 꿈과 열정이 있다면 항상 청춘이어라. 불행은 욕망에서 옵트고, 사랑은 믿음에서 싹트며, 행복은 나눔에서 빛난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글처럼 꿈과 열정을 항상 곁에 두시고 건강하시고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Letter 12

대물림 된 알코올 중독

애청자

특 별한 이유도 없이 내 마음은 매번 어둡고 슬픈 것을 향한다.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을 좋아하고 활짝 핀 꽃보다는 시든 꽃을 갖고 싶으며 과일도 예쁜 것보다는 상처 난 것에 마음이 끌리곤 한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는 우울한 감정이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오래 전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알코올 기운에 의지해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족들을 향해 쏟아붓는 폭군이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발 술을 사라지게 해주세요'하고 바랐다.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것도 다반사였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깨만 살짝 스쳐도 지나가는 사람 멱살을 잡았고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쏟아부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술주정뱅이 서 씨네’라 불렀고 결국 아버지는 알코올로 인한 치매 증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던 탓일까. 아니면 내 안에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박혀 있었던 걸까. 산후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다. 우울증이 내 마음의 틈을 조금씩 비집고 들어와 몸집을 키우며 행복을 갉아먹자, 녀석을 이기기 위해 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결혼 상대로 술을 전혀 못 마시는 남편을 선택하고 직장 회식 때마다 형식적으로 받는 술 한잔도 거절했던 내가 짧은 순간 술 없이는 못 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연한 기회가 화근이 되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빠 캠프를 떠난 날, 참을 수 없는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그만 남편이 선물로 받은 술병을 열어버리고야 말았다. 그것이 술과 맺은 악연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는 알코올 생각이 빙빙 맴돌았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한없이 즐거워졌다. 알코올 기운은 묘하게도 내게 일탈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

우울하다고 술을 마신 사람이 모두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닐진대 나는 술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끝도 없이 빠져들었다. 우울할 때 술을 마시면 신기하게도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술이 내 몸속 장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분이었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시고 또 마셨다.

외로웠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내가 가정이 단단히 자리를 잡아갈 수록 더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불행할 것 하나 없는 내가 세상에서 제

일 불행하다고 느껴졌다. 맛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워도 영혼의 허기는 가시지 않았고 우울증 약을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증세가 날로 심해져 약을 점점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나는 위험함 속에서 쾌감을 즐겼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몸에서 갖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압이 높아지고 간수치가 급격히 안 좋아졌으며 불안장애를 넘어 공황장애까지 찾아왔다. 망가져 가는 내 몸보다 더 끔찍했던 건 가정이었다. 알코올이 삼켜 버린 우리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꽤 지쳐 있었고 때로는 한없이 슬퍼보였다. 어느 날은 술에 식아버린 나를 붙잡고 남편이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힘들다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어느새 그 옛날 내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이 투영돼 보였고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적어도 난 아버지처럼 술에 빠져서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깨트리지는 않을 거야.’

그날부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지인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도 나가게 됐다. 중독자들끼리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회복을 돕는 모임이었는데 진행자는 자신을 ‘단주한 지 5년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단주를 했더라도 한 잔의 술로 다시 중독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강제 입원을 했다던 A씨,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아내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는 B씨, 나처럼 산후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이 된 내 또래의 여성 C씨, 취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청년 D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온 인생을 털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그들 앞에서 내 얘기를 꺼내놓았다. 축스럽기도 했지만 용기를 냈다.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술이 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했는지 털어놓았다.

물론 술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고 한동안은 금단증상에 시달렸다. TV에서 술 광고가 나오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내 가족을 생각하며 사온 술을 쏟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다니며 나는 조금씩 술과의 작별을 고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할 수 있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내게 정신적으로 큰 위로를 주었다. 그 후로도 센터의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금씩 예전의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고 알코올의 노예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우울 증세가 심해질 때면 술이 아닌 명상호흡을 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즐긴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Letter 13

나는 호스피스 봉사자

송순임 | 경기도 시흥시

수 너님의 강의를 듣고 어렵פות이 알게 된 호스피스. 그 병동에 입원했던 엄마가 한 달 만에 선종하셨다. 봉사자들이 해주던 따뜻한 밥을 먹고 일 년 후 나는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었다. 10년의 호스피스 봉사자 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회색빛 커튼이 두껍게 드리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것 같은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쫓긋 세우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들곤 했다. 동동거리며 각종 이벤트를 만들고 이생에 마지막 기도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드렸다.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할 것 같은 호스피스는 아이러니하게 노래와 웃음이 있고 늘 사랑과 감동이 어우러져 있는 병동이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는데 내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성질이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많은 유방암 환자를 보았고 수많은 선종을 지켜보았던 그 암이 내게도 왔다. 병원에서 나온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봄비는 지하상가를 그저 따라 걷고 있었다.

“엄마, 암이라~” 휴대폰 안에 딸이 영영 울고 있다. 그때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고는 온갖 검사들과 수술 일정이 정신없이 돌아갔다. 가족들에게는 덤덤히 “갔다 올게~” 했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자 추워서인지 두려움인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간호사 옷자락을 움켜잡고 놓지 못했다. 오른쪽 가슴을 절제하였고 항암을 위한 주사 줄을 넣는 수술도 했다. 매일 매일 긴장의 연속이다. 그리고 6번의 항암에 18번의 표적 치료가 3주마다 이루어졌다.

6층에 올라 테라스에서 쏟아지는 햇볕을 뒤로하고 오른쪽으로 보니 많은 환자와 가족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부분 무표정에 내려앉은 어깨들이 보인다. 여기가 항암 주사실이다. 커다란 두 개의 방에 60여 개 침대가 마주 보며 놓였고 칸칸이 커튼이 내려져 있다. 젊은 남자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자로 얼굴을 덮고는 안으로 숨어들듯 커튼을 닫는다. 건너편 여자의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 나온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사 줄에 붙잡혀 꼼짝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 이 오지람이 또 발동한다.

두 분 간호사는 실수 없이 하려는 듯 ‘허스핀 450 387...’ 입을 맞추어 처방된 주사액을 놓아준다. 주사액이 들어오는 순간 입안이 텅고 쉰 느낌이 확 퍼졌다. 항암을 맞고 24시간 후 백혈구 촉진제를 맞는다. 백혈구 촉진제 효력은 대단하다. 팔뚝에 그 작은 한 방은 약!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항암과 백혈구 촉진제가 만나며 비로소 시작된다. 땅속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는 듯하다. 방광부터 공격한다. 손끝 발끝 저리며 모든 관절과 항문까지 콧속 쭈셔 대며 봉사 때 글로 적어 알게

된 오심과 구토 설사가 시작된다. 한 톨의 밥알도 허락지 않으며 물조차 마실 수 없다. 미음으로 겨우 달래어 밥 한술 뜨게 되면 다시 항암을 맞으러 가야 한다. 어느 정도 안다고 했지만, 실제 경험은 경험하지 않은 예상으로만 아는 지식보다 컸다.

두 번째 항암 후 아침에 고개를 드니 우수수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베개에 잔뜩 묻어 있었다. 욕실 바닥엔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잃으니 더 더웠고 훨씬 추웠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9월 4일 첫 주사는 남편과 동행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운전하여 혼자 다녔다. 무엇보다 멀리 있는 딸, 남편과 아들이 3주마다 연차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성질 더러운 놈으로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 허둥대게 할 수는 없었다. 병동에서 긴 시간 환자 아닌 환자가 되어 가는 보호자들을 봐 왔었다.

암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들은 “요즘은 다 낫는데~” 하며 뭐라 말해야 하는지 당황해했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우리 함께하자”며 달려와 손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24번의 그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병원 출입에도 불구하고 병원 앞에서 늘 기다리며 지켰다. 먹지 못하는 나와 가족을 위해 반찬을 가득 담아 오기도 했다. 우리 호스피스에서 뭘 했을까. 돌봄만이 아닌 뭘 쌓았을까. 품어 안은 가슴에선 말 없이도 느껴졌다. 삶에 끝자락인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배운 것 같다.

다음 해 7월쯤 모자를 벗고 병원에 갔다. “머리가 예쁘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머리가 자라고 처음으로 머리를 빗어보던 날 왠지 한없이 울었다. 잘 견디고 있어서였을까. 18회 마지막 주사다.

막다른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앞에 서보니 늘 했던 자식 걱정, 남편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내가, 준비했어야 했다.

진정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의구심에 휩싸여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한 나날을 의연하게 보내려 일상을 지켰다. 그리고 소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들과 여행도 가고 만남을 주선하고 음식도 준비했던 생각을 했다.

그래 떠오른 생각과 하고픈 일은 미루지 말자. 지금이야. 일어나자. 매일 아침을 챙기고 김장도 했다. 남편과 안목 해변을 찾았고 불갑사 상사화 축제도 즐겼다. 그러나 찜질방을 즐기고 뜨거운 물에 몸 담그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 후 한 번도 대중목욕탕에 안 갔다. 아니, 못 갔다. 완전한 방법으로 절제를 권하셨고 그러겠다고 이 나이에 괜찮다고 했는데 아직 내 몸을 드러내는 용기는 나지 않는다. 균형을 잃은 어깨는 기울어지고 아프다. 옷 입기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6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있으며 검사 수치에 두려움도 있지만 난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남편과 퇴근 후 등 뒤로 느껴지는 따뜻한 아들의 체온과 숨소리에 행복하다. 멀리 제주도에 있는 딸은 매일 전화로 나의 하루를 묻는다. 내가 보자기 공예에 관심을 보이니 어느새 북촌 마을에 신청을 해놓았단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곁을 지키는 딸, 나와 많이 닮은 딸.

나는 주사가 끝나고 영양보호사,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획득하고 컴퓨터와 영상 편집도 도전 중이다. 또 한 달에 두 번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를 나가고 있다.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오늘도 잘 지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새삼 소중하며 세상은 아름답다.

Letter 14

치약, 남편을 추억하다

박소영 | 경남 진주시

잠에서 깨도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아침. 더 이상 미적거리면 안 될 것 같아 과감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또 허리부터 째구나.”

너무나 그리운 목소리.

“여보, 치약 끝부터 짜라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하노?”

이제는 더 이상 이 잔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남편의 헛구역질이 계속되어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식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서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저와 남편



은 선생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그 어떤 치료라도 좋으니 조금의 희망이 있으면 받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렸지요.

결혼한 지 30년, 그동안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편이 도맡아 하다 보니 혼자 하는 모든 일이 낯설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데리고 천리길이라고 하는 진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하는 일부터가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집과 직장을 오가는 길 외에는 운전해 본 적이 없기에 차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살려야 하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서울까지 병원에 다녀오면 몸살이 날 지경이었고 병원에 다녀와서 학

교에 출근한 날이면 몸이 버티질 못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간병 휴직계를 내고 남편 병간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2시간씩 맞고 오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눴지요.

“고령에 놀러 갔을 때 가야 고분에 순장했던 관습을 보며 욕했었는데 그 왕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 내 없으면 니 우찌 살긴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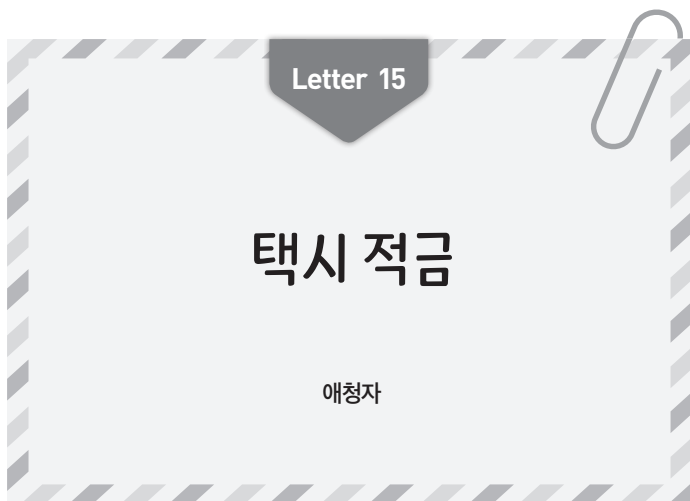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니랑 살끼다. 다음 생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암호를 정해서 서로를 찾아내자. 니는 나를 찾을 때 뭐라 킬래?”

“자기는 뒤끝 대마왕, 나는 자백 대마녀로 정하자. 나도 니를 꼭 찾아내서 다음 생에도 니랑 결혼해 줄게. 내만 믿어라이.”

그 이후로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제작년 12월 29일, 병원을 찾았을 땐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생명 연명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남편과 아들, 셋이 촛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분 촛불처럼 남편의 생도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다가 작년 1월 10일 결혼 30주년을 지나서 남편은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간 지 6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6개월 동안 남편이 좋아했던 주폐의 ‘경기병 서곡’을 틀어줬습니다. 남편은 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성적이고 따뜻했던 나의 남편이 추운 겨울날 아침, 허리부터 눌러 짠 치약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하네요.



지 하철 경로 대상이 되면서 숲이나 공원을 방문할 때는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이 생겼다. 가까운 역에서 내려 걷거나 환승하면 되고 주차 전쟁을 피해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 일과가 느긋해지고 주차비와 휘발유까지 절약되니 일석이조다.

거기다 아낀 만큼 적금 통장에 넣어 불리는 재미가 있다. 일명 ‘택시 적금’.

가입 뒤 두 번째 적금을 내는 날, 창구 직원이 통장을 돌려주면서 겹면에 써어 있는 ‘택시 적금’이란 단어를 보고 “택시 구입 하시려고요?” 웃으며 물었다. 부끄러웠지만 “이 나이에 무슨 택시요. 목돈만 들어 불렀다가 팔십 세 되면 애들 신세 안 지고 어디든 택시 타고 다니려고요” 하니 좋은 생각이라며 엄지를 내밀어 주었다.

나는 팔십이 되면 다리가 아파 지하철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할 것

같다. 그때가 되면 15년간 무료 지하철을 이용했으니 덜 타도 될 것이고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흔들리다 보면 넘어져 팔이나 다리 골절이 있을 수 있어 기사 아저씨나 주변인들에게 애먹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자면 택시를 불러 목적지에 가서 불일을 보고 택시를 타고 오면 편할 테고 보고 싶은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고 대소사에 아이들에게 모시러 와라, 데려다 달라면서 귀찮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 판엔 효율적이며 가성비가 높은 삶을 살고 싶어 낸 피인데 몇 해 전 큰 시장에 나가 장을 봐 오다 버스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몇 달간 고생한 친구 엄마나 시내 치과나 병원에 진료 차 나오면 모시러 가야 하는 엄마의 일상이 당연함에도 내 스케줄이 있을 땐 버겁기 때문이다.

경제 순환과 시간 소비를 감안하는 것도 지혜인데 엄마는 절약 운운하며 택시를 이용치 않아 결국 러시아워 시간에 모시러 가야 하는 형편이라 나부터 변화를 꾀하는 게 어떨까 싶어 눈 딱 감고 적금을 붓기 시작한 거다.

그렇다고 내가 넉넉한 이는 아니며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절약하는 방법을 배워 통신비 가족결합이나 장기 이용으로 할인을 받고 배달 음식의 용기 처리가 부담돼 찾아가 먹거나 주문 뒤 직접 가져오는 수고를 하는데 걷기 운동이 되어 도움이 된다.

최근엔 영화관도 조조할인만 관람하다 경로 우대로 종일 반값이란 걸 알게 되었고 고궁이나 전시회조차 무료 아니면 할인을 해줘 아낀 만큼 모을 수 있고 그걸 챙기는 재미 역시 쏠쏠하다.

거기다 납세 의무를 지킨 덕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성실 납세자가 되어 지방 공영주차장이 무료거나 평일엔 철도 운임의 할인

혜택까지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칠십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팔십이 넘으면 평소 이용치 않던 택시를 당당하게 이용하는 여유를 부려 보고 싶다. 살아있다면 말이다.

나의 이런 썰을 들으면 친구들은 박수를 쳐가며 “적어~ 적어~ 이런 건 메모해야 해~”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은 몇 해 전 속초 여행에서 만난 당당이 할머니들의 행보가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유명 생선조림 집 앞에서 개점을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는데 택시에서 내린 할머니들이 각각 빨주노초파남보 스카프를 길게 드리운 채 우리 뒤에 서 계셔 대화가 시작됐는데 여고 동창이라고 하셨다.

스카프가 멋지다며 “혹시 무지개 클럽이세요?” 하고 물으니 소녀처럼 깔깔 웃으며 “멋지지요? 이번 수학여행은 컨셉을 무지개로 정했어요” 하며 생선조림을 먹은 뒤 유명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 총무란 분이 콜택시 회사에 연락해 몇 시까지 대기하라고 척척 진행하는 거다.

거기다 중앙시장에 들러 오징어랑 반건조 생선을 구입하여 택배로 부쳐 달라 주문했고 마스터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러 간다고 하셔서 멋지다고 추켜세워 드렸더니 젊을 때 열심히 다니라고 우리를 응원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 아프다며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계절마다 팔도강산 누비고 과감히 택시에서 내리고 스카프 날리며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다.

그래서 3년 만기 1차 적금을 완결하고 2차 적금으로 넘어갔는데 전보다 이율이 높아져 요만치 갈 걸 저만치 갈만큼 여유가 생겨 여행 컨설팅 책을 뒤적이다 여성시대에 이야기를 남겨 본다.

이들의 손편지

병상의 남편에게

오육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쓸쓸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짝꿍에게
드려봅니다.

여보. 오늘은 M.B.C. 여성시대를 노코해봅니다.
언제부터일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숨소리와
평화롭게 잠든 당신 모습을 보는 습관이 하루
시작이 되었구려.

힘내세요. 당신이 누워있는 창 밖에 당신이
좋아하시던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감들도 당신이 걸어나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찬 바람도 견디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당신과 함께 만들어놓은 잠퓌대에
크고 작은 향아리 녀석들도 당신을 기다리며

반짝반짝 빛을 내며 예쁘게 단장하고
있답니다.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치면
안되잖아요. 우리 나이에 힘겨워 누워있을 수
있지요. 생리적인 실수도 할수 있어요.

그게 뭐 어찌요. 그래도 우린 따뜻한 점
또 주고 당신의 사랑스런 눈맞춤 사랑 더 받고
그러면 된거죠.

당신이 우리 가족사람 저축해놓은 것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누워 쉬었다
힘내세요. 지금 일어설 수 없으면 어때.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요.

한번 더 웃기고 한번 더 쓰다듬고
한번 더 눈 맞추고 당신에게 이렇게
할수있는 나여서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기에 나도 견디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여섯 누워있는 당신 바라보면서 이 나이에
 맞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견뎌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60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모두 다 드렸고
 많은 이야기도 했는데도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여
 힘내세요.

가보고 싶은 곳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 봐야지요.

그리고 당신에게 늘 약속했던 그 약속. 꼭
 지키렵니다. 어느 곳이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약속.

여섯, 뜰보기 넘어로 글씨도 힘든 걸 보니
 늙기는 늙었나 보네요. 당신이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용인 주양골 할매



여성시대 사진방



[0622]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아이가 사용했던 물품 중 깨끗한 것 위주로 보내려고요.



[345] 전남 강진입니다. 하우스에서 딸기 따면서 여성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9730] 회사 근처에 기업은행이 있어서 여성시대 책자를 가지고 와서 회사에 가져다 놓고 직원들끼리 잘 보고 있습니다.



[3846] 메주 쬐는 날이에요. 큰술에 불 때며 여성시대 듣는 총복 영동 당당입니다.



매주 월요일 당당이분들께 행운을 나눠드리는 행운번호 추첨 현장입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도 수원시의

여성시대 가족 김용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몇 해 전 12월 23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아~ 좋다.



택시 앞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화서역 앞에
아파트요~



아이고 젊으시네.
이 추운 날 아이스커피를
다 드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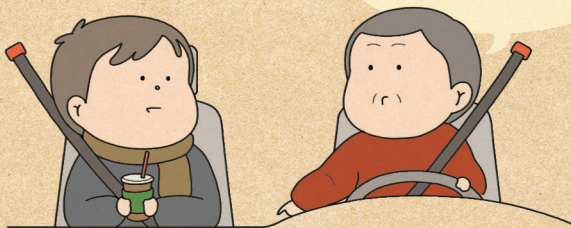


택시 안의 풍경은 한 겨울 추위와 어울리지 않게
정겹고 아늑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저는
기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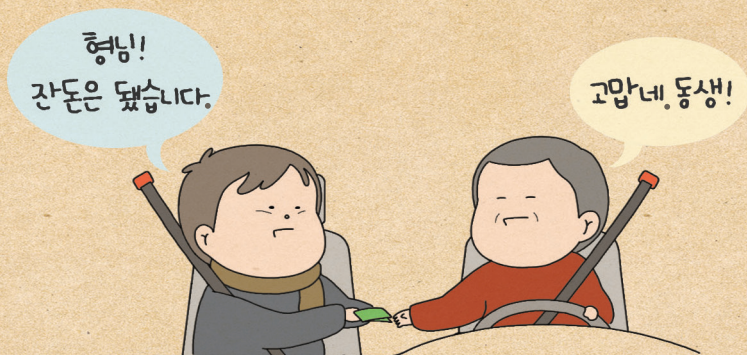
인생 고민부터, 자녀들 이야기까지
어느덧 우리는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기사님 운전석 옆 컵홀더에는
거스름용 잔돈이 담긴 종이컵이 놓여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님, 아니 형님께서 해주신 조언들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9500원
저는 형님께 2만 원을 드리고



그렇게 잠시 동안의 애뜻한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서



커피를 한 잔 들이켜는데

오백 원짜리 동전이 한 움큼 담긴 종이컵이
기사님이 모아둔 동전이 담긴 바로 그 종이컵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밑부분에 딱하니!!!



현금으로 계산해서 조기도 불가능한 터라
근처 지구대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형님 꼭 찾아서
돈 좀 돌려주세요!!



형님! 12월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택시 탔던 동생입니다.
그 날 해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기업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거래고객

유일산업(주) 박승해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 유일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페트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일산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PET 전문 재활용업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먹고 버리는 PET 용기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곳이다. PET 용기를 재활용하여 의료용, 산업용, 차량용, 시트용, 섬유용, 토목건축, 가구 인테리어, 농업원예, 위생자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보급한다. 현재 양산, 부산, 어곡에 공장을 설립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유일산업은 일회용 컵과 계란판, 과

일용기 같은 용기용 플라스틱을 1년에 최대 150,000톤 처리할 수 있다. 보관량도 8,805톤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1990년대 섬유회사에 재직 중이던 박승해 대표는 유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선진국의 재활용 산업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고 재활용업체 창업을 생각했다. 마침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량제를 실행하면서 시기가 맞았다. 1996년 작은 영



세업체로 시작한 사업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2006년 8월 (주)유일산업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창업 후 1년 만에 IMF가 발생했지만 유일산업은 굳건했다. 재활용하여 납품하는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오히려 호경기를 맞은 것이다. 밤낮 없이 일할 정도로 바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량이 밀려들었다.

“페트병이 들어오면 투명한 거, 파란 거, 까만 거, 온갖 종류가 다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페트병을 선별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내 최

초로 유럽의 선별 기계를 국내에 도입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 능력도 향상됐어요. 덕분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죠”

유일산업은 2008년 ‘버들 광학 자동 선별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8년 ‘플레이크 광학 자동 선별기’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국내 최대의 재활용 광학 자동 선별 시설과 무색페트, 혼합페트, 단일재질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A급부터 B급까지의 등급별로 원료 생산이 가능하고 70여 가지 색상의 페트를 재활용을 통해 고객사에서 원하는 색으로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이유다.



“늘 환경을 생각하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사훈처럼 유일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아낌없는 설비투자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사에서는 소각·매립되던 폐페트를 섬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다. 나아가 이 생산품들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경남에 매립되고 있는 7~8,000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산동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B2B(Bottle to Bottle)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페트 플레이크로 페트 펠릿을 생산하여 재생 페트병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페트 처리 문제를 같이 고민한 끝에 설비를 시작하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이대원 지



점장은 “한 기업의 CEO로서 박승해 대표님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뿐 아니라 환경을 위해 나를 사명감으로 회사를 키워 오셨다”며 “처음 조그맣게 시작할 때부터 공장을 증축하며

지금의 규모를 갖추기까지 변함없이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이어온 대표님이 환경을 위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 철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이대원 지점장(왼쪽)과 유일산업(주) 박승해 대표

! 유일산업(주) 박승해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라.
2. 선진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라.
3.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라.

유일산업(주)

대 표 박승해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94
전 화 055-388-4593 홈페이지 <http://www.yuil.or.kr>



로봇 기술의 세계 넘버원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석암지점 거래고객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고,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해준다. 산업계에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이제 머지않아 로봇이 더 많은 일상을 함께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 국내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로보틱스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유일로보틱스는 로봇전문기업이다. 2010년 유일시스템으로 시작하여 이후 유일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로봇 개발을 시작하였다.

김동헌 대표는 창업 당시 국내의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을 보고 국내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유일로보틱스를 창업하였다.

유일로보틱스의 주요 제품에는 직

교로봇, 협동로봇, 다관절로봇이 있다. 직교로봇은 구조상 뼈대가 X, Y, Z축을 따라 직교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 '직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로 인해 로봇 팔이 각각의 축을 따라 선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자동차 조립, 전자 제품 조립, 의료 로봇, 물류 및 창고 자동화, 식품 제조 및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기초 형태다. 협

Not first but best



동로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 어떤 작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로봇으로 사람이 하는 일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효율성은 높여준다. 다관절로봇은 작업 동작이 3종류 이상이고 3개 이상의 회전운동기구를 결합시켜 만든 로봇으로 행동이 빠르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동작 범위도 넓어 공장의 생산 설비 조립 작업이나 도장, 용접 등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 로봇 개발 회사가 많지만 유일로보틱스처럼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없다.

“국내에는 한 가지 로봇을 전문적

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만 유일로보틱스처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회사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로봇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일부 부품을 OEM 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기술을 발전시켜 전체적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로봇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앞선 기술력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김동헌 대표는 유일로보틱스가 창



업 10여 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자랑했다. 누구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 덕분에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수행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을 칭찬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가 유일로보틱스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로 산업계가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결국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타 로봇 회사와 달리 각기 다른 작업 현장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유일로보틱스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IBK기업은행 석암지점 정도영 지점장은 “유일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을 하고 나서 석암지점도 위상을 재정립하고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창업 시작부터



함께해 온 유일로보틱스가 국내를 넘어 세계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일로보틱스는 '지속 가능한 사

업과 미래'를 위해 곧 신사옥 청라 ROBOTORY(Robot+Factory)로 이전한다. 신사옥 이전과 함께 새롭게 회사를 재정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유일로보틱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석암지점 정도영 지점장

❗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춰라.
2.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여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끌어라.
3.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도전하라.

(주)유일로보틱스

대 표 김동헌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62번길 37-45
 전 화 032-863-9810 홈페이지 <http://www.yuilrobotics.com>

코너 속 편지

남성시대

81 우리 딸 은서

주말엔 투유

84 가장 키가 큰 당당이에게

87 한 번 더 날자꾸나

90 선생님과의 대화

92 나의 찬란한 딸

94 큰누나!

98 어르신과 새 달력

100 열일곱 번째 이사

104 아빠는 요리사



남성시대

우리 딸 은서

한재경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아내와 저는 결혼 후 아기를 빨리 갖지 못했어요. 결혼하면 아기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3년 만에 첫아기,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마침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아내는 동네 산부인과로 정기 검진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아내와 저를 부르더니 “임신중독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임신중독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동네 산부인과는 크고 이름난 전문 병원이었는데 이렇게 큰 병원에서 아내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에 놀랐고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서 개인병원에서 가져온 소견서를 제출하고 바로 ‘고위험 산부인과 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고위험 환자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아내한테 잘 못해서 아내가 아픈 건가, 더 신경 쓰고 잘해주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죠.

아내는 고위험 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열 달을 못 채우고 아홉 달 만에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려 했지만 진통만 계속되어 아내는 탈진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의사 선생님이 결정했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기. 열 달을 못 채우고 낳은 우리 예쁜 딸. 사실 제 눈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빨간 피부가 주글한 아기인데 아내는 그런 딸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몸 안에 품었던 아기를 처음 본 엄마의 마음, 모정을 이제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아내도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병동이 아닌 수술실 옆 긴급 병동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그때 힘이 하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아내는 제게 물었어요.

“아기 이름은 정했어?”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은서라는 이름 어때?”

아내는 아기 이름을 오랫동안 혼자 생각해 온 것 같았어요. 자연분만을 유도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다시 수술하면서 모든 힘을 소진한 아내가 제 앞에서 아기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름 너무 예쁘다. 은서! 잘했네. 어떻게 그런 예쁜 이름을 생각했어?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은서라는 이름이 정해졌지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홉 달 만에 태어난 우리 딸 몸무게는 고작 2.42kg. 제가 신생아실로 찾아가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아기의 상태를 묻자 신생아실 간호사님은 아기가 우유를 잘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생아들보다 우유를 더 잘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은서도 살려고 우유를 잘 먹은 것 같아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고위험 환자실 비용에다 병원비도 많이 나와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은서를 포대기에 안은 저는 산후조리원 2주 예약을 4주로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가볍던지 아기가 포대기 안에 들어 있는지 의심될 정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안 계신 아내에게 2주 후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안 될 일이었어요.

산후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세상 까다로운 아가씨였어요. 안아주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아내는 전업주부라 종일 혼자 은서를 돌보다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같이 은서를 목욕시키고 아내는 좀 쉬고 제가 은서를 안고 잠을 재웠어요. 잠들었다 싶어서 내려놓으면 바로 깨는 아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은서를 가슴에 안은 채 제가 누운 걸 은서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똑바로 누워서 겨우겨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태어나고 5개월 후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송혜교, 송승헌 그리고 “얼마면 되겠어?”를 외치던 원빈이 나왔는데 그 드라마 속 송혜교의 이름이 바로 은서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은서는 이제는 다 커서 아빠랑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안고 잘 수도 없지만 저는 가슴속에 항상 은서를 안고 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주말엔 투유

가장 키가 큰 당당이에게

강병숙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중 씨, 안녕하세요. 선배 당당이 강병숙입니다. 베란다에 이불을 널고 이 좋은 날 무슨 일을 해야 뜻있는 하루가 될까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면 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특히 우리 엄마 집이나 다름없는 여성시대의 남자 진행자가 바뀌던 지난봄쯤엔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고민을 싹 날려준 분이 바로 일중 씨였네요. 사실 김일중, 처음엔 약간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과연 이 남자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외람된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일중 씨, 첫날부터 당당이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으시더군요. 베테랑 양희은 진행자와 호흡이 잘 맞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양희은 씨의 말을 재치 있게 받아 이어가는 지혜도 돋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두 분의 호흡은 금상첨화. 저도 일중 씨에게 반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안방에서 거실, 현관까지 희은 씨의 목소리와 함께 일중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참 듣기 좋아요.

그렇게 일중 씨 목소리에 익숙해질 무렵, 아들 식구가 찾아와 방송국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손녀가 방송국 구경을 하고 싶어 해서 방송국 주변을 둘러보는데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있지 뒤에

요. 여성시대 책 7월호에서 본 사진이었지만 그곳에서 보니 더 반갑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일중 씨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싫지 않지요. 비록 사진이었지만 참 반가웠습니다.

또 어떤 날은 여성시대를 듣다가 으쓱하기도 했네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8월 22일 같아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사연이 나오기 직전이었지요. 김일중 씨께서 하와이에 안 가봤다고 하는데 엄청 통쾌했어요. 모자랄 것 없을 것 같은 분이 안 가본 곳이 있었구나 싶어, 제가 순간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된 거지요. 저는 딸 주선으로 다녀왔거든요. 어른이고 아이고 누굴 앞선다는 건 이유야 어떻든 우울감이 든다고 하더니 저를 두고 나온 말이었네요.

인물 좋고 흰철한 김일중 진행자님 잘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부르면 말씀씨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귀여워요. 여성시대에서 가장 키가 큰 당당이 일중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서울 남가좌동 당당이 강병숙 드림

[추신] 물론 저는 양희은 씨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양희은 씨를 좋아하는 건 사연을 읽는 목소리에 글을 보낸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서입니다. 어떨 때 희은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일을 하다 선 자리에서 몸이 굳을 것만 같아요. 여성시대에 폭 빠지는 건 사연을 보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나 한 덩어리로 뭉쳤기 때문 아닐까요. 양희은 씨의 말은 때론 좀 엄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무게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용기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붙고요. 양희은 씨와 진행을 돕는 여러 선생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은 당당이님들도 사랑합니다.

주말엔 투유

한 번 더 날자꾸나

김옥화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엄마의 차남, 전용섭에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2018년 네가 대학교 4학년이던 시절, 작은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던 게 어느새 6년이나 되었네. 처음 네가 식품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땐 쉽지 않은 길이란 걸 알아서 아빠도 반대하고 이 엄마도 말렸지만, 네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하는 것' 거기에 보상이 따라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려서부터 너는 요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외식하고 오면 꼭 그 맛을 재현해 내고 엄마 음식에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꼬집어내고 비판도 잘하는 아이였어.

그런 네가 마침내 식품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여름 너의 사무실에

갔다 사무실 한쪽에 놓여있던 침낭을 보고 웬 거냐 물으니, 일이 밀려서 열흘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쪽잠을 자며 밤새워 일했다는 얘길 들었을 때 엄마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아 비건 식품 연구와 상품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하던 네 열정은 높이 산다. 네가 음료, 초콜릿, 빵 등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많은 분이 ‘식물성 재료로 어떻게 이 맛이 나올까?’ 호평을 쏟아내고 좋아해 주셨잖아.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몇 가지 품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이야기를 듣고 눈만 뜨면 네 걱정을 하던 엄마에게 너는 말했어.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늘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켜 주는 네가 참 고마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야.

우리 아들을 제일 칭찬해 주고 싶은 놀라운 일은 100킬로그램이 넘는 거구에서 단기간에 40여 킬로그램을 감량한 너의 의지! 그리고 그 걸 사업으로도 연결해 내는 걸 봤을 때였어. 모두 대단하다고 놀랐지.

그리고 지난 10월 말 춘천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6개월 만에 완주했을 때 아빠 엄마는 그런 너를 응원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건 네가 너를 다시 세우는 너 자신과의 약속 같았거든.

삼촌도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러더라.

“형수님, 형수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형수가 ‘용섭이 엄마라서예요.’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더냐.

네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면 아직도 주머니에서는 굳건한 사탕 봉지, 휴지, 심지어는 물 마시고 난 종이컵까지 한가득 나오는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구나 싶더라.

넌 항상 의로움에 앞서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아이

였지. 너의 그 마음들 앞으로도 변치 말고 남들보다 늦더라도 네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을 응원할게!

엄마가 우리 차남!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어. 그 시로 이 편지를 마친다.

가장 넓은 길

- 양광모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주말엔 투유

선생님과과의 대화

유소영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선생님!

찬바람이 부는 주말 밤, 음악을 들으며 글을 씁니다. 서점에 자리 잡은 연말연시 카드를 보고 사고 싶었지만 마땅히 보낼만한 대상이 없어 발길을 돌렸지요. 근데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띄운 편지가 편도가 되어 답장이 돌아오지 않는 게 서운해 아예 쓰지 못했다는 게 맞겠더군요.

저는 편지 쓰기를 좋아하고 편지지 코너 앞에서 설렘을 느끼지만 학창 시절의 감성을 남겨둔 친구가 없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극사실주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에게 좌절했더랍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에 열여섯 소녀를 품고 있지만 그들은 아니더군요. 친구들을 탓할 건 아니지요. 각자의 현실과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모임이 많아져 모두 바쁜 시기지만, 전 사실 연말연시를 싫어합니다. 시작과 끝이 맞닿아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이 증폭되고 밝은 이면에 생



기는 그림자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요. 이성 친구가 연말에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만큼 쓸쓸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성실하게 또 다가왔습니다. 혼자 잘 살아왔는데도 연말을 잘 보내는 기술은 아직 습득하지 못했네요. 작년처럼 수도원에 갈까 싶기도 합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으니 미리 걱정하는 수고를 사서 하진 말아야겠죠.

진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싶을 때 기회가 생겨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 때마다 후다닥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본인을 위해 살아도 된다.’

나는 이 말을 들으려고 상담을 신청했구나. 오랜 시간 자책과 후회에 싸여 살아온 나에게 미안해야겠다고요. 어느 순간 느닷없이 또 다른 마음이 찾아와 스스로를 힘들게 할 지도 모르나 나는 나를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회기지만 잔잔하고 차분한 선생님과 대화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길요.

주말엔 투유

나의 찬란한 딸

박선옥 | 광주광역시

하원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 소렌토, 베네치아, 카프리섬을 여행하고 오늘은 밀라노에서 스위스로 이동한다고 톡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랑하는 나의 딸. 환히 웃으며 행복해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지난해 2월에 간호대 졸업하고, 3월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체중이 7킬로그램이나 빠질 정도로 힘들어하던 때가 생각나더라. 그때 데이 근무면 새벽 3시 반까지 공부하다 한 시간 반 자고 다섯 시에 준비해서 나가는 날 보면서 엄마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힘들면 두 배 세 배 힘들고 자식이 행복해하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단다.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와서 잠들기 전 네 입에 포도를 넣어주니 몇 개 먹다 손에 들고 잠이 들었더랬지. 네 손에서 포도알을 빼서 들고 나오면서 엄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고 며칠 후 성당 미사 시간에 네가 물었지.

“엄마! 나 퇴사해도 돼요?”

그럼 되고말고! 하원아, 그만두는 것도 용기란다.

이제 스물셋, 대학병원 중환자실 6개월 근무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유럽이 너무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너는 여기저기 검색하다 드디어 지난 10월 16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지.

널 보내고 예전 네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 중고등학교 청소 시간에 네가 학교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다길래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하기 싫어하더구먼 그건 왜 하니?” 물으니, 네가 그랬지.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고3 생활기록부에는 선생님께서 하원이는 지나친 겸손이 단점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

하원아, 너는 그 무엇을 하든 부모의 기대 이상 해내는 자랑스러운 딸이야.

너의 대학교 졸업식 날 축하 기억하니? ‘세상이 널 알아볼 수 있게 높이 뛰어올라~!’ 그래, 그 노래 가사처럼 높이 뛰어올라라~ 사랑하는 나의 딸!

- 널 항상 응원하는 엄마가

[추신] 하원이는 제 나이 마흔하나에 낳은 외동딸입니다. 낳은 지 8개월 됐을 때 여성시대에 ‘눈물’이란 주제로 글을 써서 2000년 가을 주부나들이도 다녀왔어요. 친정 엄마랑 난임 클리닉도 다니고 했는데, 엄마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자연임신으로 낳은 아이라 엄마 생각에 많이 울었거든요. 여성시대와 함께 자란 제 딸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편지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말엔 투유

큰누나!

권영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누나, 누나에게 편지를 써놓고 보내지 못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약 5년 7개월 전이네.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새삼 느껴.

우리 3남 2녀 오 남매 중에서 나는 넷째, 누나는 장녀. 지금 같으면 한참 부모님께 응석 부릴 나이였는데 누나는 가난한 집에 장녀라는 이유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지.

결혼해서도 자녀들 키우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했잖아. 생활력이 강한 누나는 조카들 모두 대학 보내고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당했었지. 누나,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누나한테 미안했는지 알아?

결정적으로 내가 누나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건 2017년 12월 누나와 누나 가족에게 일어난 큰 아픔 때문이었어. 누나와 누나



가족을 위로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더랬지.

누나의 둘째 딸, 우리 조카가 과중한 회사 업무로 쓰러져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던 날. 나는 착한 우리 누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어.

다행히 지금은 조카가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고 한쪽 팔만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지난 12월 2일에 결혼한 누나의 장남! 우리 큰조카는 지금 좁 호주에서 신혼여행의 단꿈을 누리고 있겠네.

원래는 2년 전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그만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날려버렸지. 전세 사기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결혼도 미루게 됐던, 한순간에 청년의 꿈을 앗아간 악랄한 사기범들 때문에 조카는 물론 누나 가족들 모두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 그 생각을 하면 나까지 잠이 안 오더라.

그래도 누나! 누나네 가족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온 가족이 합심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큰누나가 정말 존경스러웠어.

이번에도 직장 다니면서 아들 결혼 준비로 바빴을 텐데 편찮으신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자마자 누나는 바로 엄마를 누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지. 그런 누나 덕분에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들인 내가 모셔야 하는데 엄마가 딸네 집이 편하다고 하시는 것도 늘 누나들한테 면목이 없네.

조카 결혼 앞두고 자영업 하는 내가 요즘 많이 힘든 거 알고 누나가 전화해서 그랬지. 큰조카 축의금 대신 내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물론 내가 단박에 거절했지만 전화를 끊고 만감이 교차하더라. '그래 누나는 항상 이렇게 동생들부터 챙기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싶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큰누나! 누나 이제는 동생들 걱정 그만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누나 몸 건강부터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나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겠지만 살면서 조금씩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생이 될게.

앞으로는 누나가 항상 행복한 꽃길만 걸길 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매형, 누나, 큰아들 결혼 축하해!

[추신] 조금이나마 아빠 부담 덜어주려고 학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아들. 1월 22일에 강원도 철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심경이 착잡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강한 사내라면 다 갔다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도 3년 현역으로 군 복무 무사히 마쳤으니까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전역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예쁜 우리 딸. 아빠가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피아노 콩쿠르 대회 못 나가게 된 거 미안해. 연주회로나마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다.

또 항상 곁에서 아들딸 잘 케어해주는 여보, 고마워!

큰누나 결혼 준비로 잠시 엄마를 모시고 있는 광안리 작은 누나! 누나한테도 항상 고마워.

이번에 장교로 전역하자마자 대기업 입사한 조카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올해 갑진년은 십이지신 중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로 모든 동물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청룡의 해인 만큼 우리 가족 모두를 비롯해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고 행운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말엔 투유

어르신과 새 달력

김선옥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어르신, 어제는 새 달력 두 개를 옆구리에 끼고 어르신 집 앞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문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전 어르신 댁 가까운 곳에 사시는 아주머니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할머니는 가끔씩 정신없이 어르신을 찾으러 다니다가 멀리 사는 아들이 보살펴 드리지 못해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니 지난여름 할머니가 길에 앉아 서럽게 영영 우시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저 골목 어르신 있지? 무슨 일 있으신가? 할머니가 길에서 너무 슬프게 우시던데”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두 분은 허리는 많이 굽으셨지만 항상 같이 산책하러 나오곤 하셨지요. 그때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들여다봤으면 좋으련만. 저희가 너무 무심하게 지나쳤어요.

어느 날엔가는 할머니께서 평상시 옷차림과는 다른 채 여미지 못한 원피스 단추며 제 짝이 아닌 신발을 신고 늘 다니시는 저희와 마주치던 골목으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어디 가시냐 여쭙더니 “우리 영감이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찾으러 가~” 하시더군요. 제가 그쪽에는 할아버지 없으시니 댁으로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긴장한 모습으로 뒹뒹 급히 집으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아~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했습니다.

어르신과 대화는 많이 나눠보지 못했지만 어르신이 처음 하신 말씀이 저는 잊히지가 않아요. 그날도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었는데 제가 새 달력 두 개를 들고 어르신 집 앞을 지나는 걸 보고 “저기~ 그 달력 나 하나 줘”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또 조금은 수줍은 아이처럼 남의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기에 제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아, 예” 하고 드렸더니 그때 너무 좋아하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두 해 더 새 달력이 나오면 일부러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하고 불쑥 내민 달력 하나에도 활짝 웃으시던 어르신 모습이 좋아서. 그 다음에도 꼭 챙겨서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제 더는 드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세월에 굽은 등과 가늘어진 팔다리에도 할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산책하시는 어르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의 80대 이후 모습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저는 새 달력만 보면 자꾸만 어르신 생각이 나서 어르신 댁 앞을 서성이게 됩니다. 어르신, 그곳에서도 산책도 다니고 늘 행복하시길 가깝고도 먼 이웃이 기도합니다.

주말엔 투유

열일곱 번째 이사

조주호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랑하는 여보!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이사 갈 집이 비어 있어서 미리 볼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는데 살고 있는 집 정리뿐 아니라 이사 갈 집까지 동시에 수리하러니 두 배로 힘들지? 특히 빌트인 집에서 살다가 구형 아파트로 가려니 가전제품들도 다시 다 준비해야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까지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 당신의 성격을 알면서도 “이사할 때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포장이사인데 당신이 미리 다 하면 센터 직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라며 판청이나 피우는 전혀 도움 안 되는 남편 때문에 더 힘들 거 같아 미안해.

그리고 보니 이번 이사가 우리 결혼 후 열일곱 번째더라.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우리가 결혼한 지 32년이 됐으니 한 곳에서 평균 2년도 채 못 산 거네.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열다섯 번, 민간인이 되어서 두

번째.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한데 당신은 이번에도 이사 준비를 참 열심히도 하더라.

직업군인이었던 나야 스스로를 ‘역마살이 낀 유목민의 후예’라 생각하고 팔도유람하듯 재미삼아 이사를 다녔다지만 떠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을 유랑생활을 어떻게 견디고 참아냈는지 궁금하기도 해.

사실 진급이라는 것에 목매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두 번은 이사를 하지 않고 근무했어도 괜찮은 때도 있었는데, 특히 국방대학원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타군 장교나 고위공무원들과 교류하고 싶은 내 욕심에서 부대를 옮기느라 이사를 했던 거잖아.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한 번 더 전학해야 했고. 순전히 나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당신을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그때마다 불만 없이 유목민 생활에 동참해준 당신, 정말 고마워.

여보! ‘지나간 고생은 추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해? 난 그 고생을 함께한 사람이 그 고생한 순간을 함께 회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이사를 결정하던 날 신혼집에서 군 관사로 첫 번째 이사하던 때가 생각나더라. 내가 총각 시절부터 혼자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가 낡은 군인 아파트로 가게 됐을 때 당신이 나를 막 다 그치면서 물었잖아. “당신 나랑 결혼하려고 사기 친 것 아니야?”라고. 내가 결혼 전 신축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현실은 낡은 아파트였으니 당신이 당연히 그럴 만했지. 근데 여보, 나는 맹세코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야.

우리 결혼 3개월 전 사단에 신축 아파트 두 동이 완공될 예정이었고 당시 사단 참모장님이 나에게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고 회

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던 건 사실이야. 다만 공사가 지연 되면서 그 아파트는 결혼 3개월이 지나서야 완공됐고 신축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고 사단 참모장님이 갑자기 부대를 떠나는 바람에 입주 계획이 산산이 부서졌던 거야. 결국 내가 했던 약속이 사기는 아니었어. 믿어줘!

그때 군용 트럭을 이용해 우리가 처음 이사한 곳은 열세 평의 낡은 군인 아파트. 그때 당신 많이 실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무언가 기대에 부풀었던 모습이었던 거 기억해? 당신이 얼룩진 벽지에 예쁘게 붙여 놓았던 잠자리와 나비 모양의 장식도 아직 눈에 선하다. 어쨌면 그때부터 당신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군대 명언을 실천한 것 같아.

그 집에서 우리는 첫딸을 낳았지. 당신이 출산의 고통을 느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좁은 집에서 집들이도 많이 했고, 전역하는 병사들 환송연도 자주 했다. 너무 자주... 당신은 그 모든 걸 군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2016년 군복을 벗고 군 관사를 떠날 때 나는 이 기회에 얼마간의 용자를 내더라도 집을 사자고 했는데 빚지는 걸 싫어했던 당신은 있는 돈 범위에서 전셋집을 구하자고 했지. 결국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 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당신은 죄인처럼 기죽어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인간사 새옹지마’야. 그동안 나름대로 현금흐름을 잘 유지했고 더욱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 걱정 않고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당신 덕분이지.

근데 나 요즘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지 알아? 이사 후 당신이 몸살이나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돼. 며칠 전까지 당신, 한 달 가까이 감기를 달고 살았잖아. 친구들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

저서 병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 나이가 됐잖아. 당신 스스로도 느끼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사하고 딸이랑 해외여행도 갈 건데 몸살이라도 나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없잖아. 나이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러니 다음 이사 때도 지금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려면 당신 건강부터 챙겨 주면 좋겠어.

나는 당신한테 고마운 게 정말 너무 많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항상 고맙고, 이번에 이사할 집이 구축 아파트라 걱정했는데 “군 아파트보다는 낫잖아”라고 말해준 것. 또 가전제품보다 내 책상을 먼저 바꾸자고 이야기해 줄 땐 진짜 너무 고맙더라.

그리고 지금 집주인에게 이사비용만 부담하게 한 것도 잘한 것 같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 달란 건 너무했지. 그래도 결혼 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7년이나 산 집이고 그간 전세금도 안 올랐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자고한 당신, 아주 멋졌어!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곱게 쓰니까 이사할 집 주인도 잘 만난 것 같아.

우리가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들 별말 없이 다 고쳐줬잖아. 보일러도 언제든 고장 나면 고쳐준다고 했는데 샤워를 즐기는 당신을 위해 고장 없이 온수가 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여보! 다음에 우리는 또 언제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될까? 나의 바람은 그저 그때도 당신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우리가 이사할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지, 설레는 마음이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둘이 우리가 살았던 곳곳을 추억하며 여전히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나와 같은 바람을 갖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해 줄 거라 믿어.



아빠는 요리사!

© 여성시대 가족이 보내주신 요리법입니다

콩나물비빔밥

저는 콩나물을 키워 먹기도 하는데,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가스 불 안 켜도 되니 간편해서 참 좋아요.

[재료] 콩나물, 양념장

- 그릇에 밥을 넣고 그 위에 씻은 콩나물을 가득 올리고, 랩으로 감싸세요. 랩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송송 뚫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6분간 돌리세요.
- 양념으로 다진 마늘,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넣고 잘 섞어 줘요.
- 전자레인지에 돌린 콩나물밥을 꺼내 그 위에 양념장 올리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배추찜 & 달래장

[재료] 배추, 달래간장

배추를 양배추 찌듯이 살짝 찌세요. 그리고 달래간장 만들어서 찍어 드시고, 달래 엮어 드시면 배추의 달큰한 맛이 참 맛있어요.

명란 비빔밥

[재료] 명란, 무, 고춧가루, 오이, 콩나물, 고사리, 밥, 김가루

- 무를 썰어 채를 만들고 고춧가루 등을 넣어 섞어주세요.
- 오이는 썰어 살짝 식용유에 볶아둡니다.
- 콩나물은 살짝 데쳐 식히고, 고사리는 약한 불에 볶습니다.
- 큰 그릇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넣고, 명란을 100g 정도 넣은 후 무채, 오이, 콩나물, 고사리, 김가루를 잘 혼합한 후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소량 첨가하세요. 진짜 맛납니다.

물미역 비빔밥

[재료] 물미역, 초고추장, 오이, 봄동, 참기름, 깨소금

- 끓는 물에 물미역을 살짝 데쳐 주세요. 찬물에 행궤 물기 빠지게 소쿠리에 건져놓고, 봄동도 살짝 데쳐 살짝 짜세요.
- 양푼에 오이채 썰어놓고, 봄동 쪽쪽 찢어 넣고, 밥 담고, 물미역 등성등성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초고추장 넣어 쓱쓱 비벼주세요. 물미역 비빔밥은 초고추장으로 비벼야 제맛이 나요.

겨울이면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해 먹는 물미역 비빔밥. 아이들한테는 달

갈프라이 하나 해서 없어주세요.

배추전

[재료] 배추, 소금, 간장, 매실즙, 깨소금, 식초, 고춧가루

- 배춧잎을 씻어서 두툼한 줄기 부분은 방망이로 두드려주고 소금을 조금 씩 뿌려줍니다.
- 밀가루에 소금 간을 해서 흘러내릴 정도로 반죽을 해줘요.
- 배추가 숨이 숙으면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반죽에 담갔다가 부치는데, 줄기 부분에는 반죽을 손가락으로 조금 떠다 부어주세요. 노릇하게 익으면 끝이에요.
- 간장과 매실즙, 깨소금, 식초, 고춧가루 등을 취향대로 넣어 양념장 만들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무튀김

[재료] 무, 소금, 설탕, 튀김가루, 카레 가루

- 무를 손가락 굵기 정도로 길게 썰어준 다음, 소금과 설탕 약간 뿌려 버무려 10분 정도 재어둡니다.
- 볼에 튀김가루와 카레 가루를 넣고 물 조금씩 부어 가며 거품기로 저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 둡니다.
- 밀간해 둔 무는 물기가 약간 생기는데 키친타월로 꼭꼭 눌러 물기를 닦아낸 다음, 위생 비닐봉지에 담고 전분 약간 넣어 흔들어 주면 전분 옷이 골고루 묻습니다.
- 전분 옷 입힌 무를 튀김 반죽에 넣어 반죽옷을 골고루 입힌 후, 기름이

끓으면 무를 하나씩 넣고 바삭하게 튀겨 주면 무 튀김 완성!
 무 튀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어서 놀랍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
 은 촉촉하니 완전 별미입니다. 아이들도 감자튀김보다 더 맛있네요. 어른
 들 맥주 안주로도 강추!

마늘꿀 조림

감기에 좋고 맛도 좋은 마늘꿀 조림 만드세요.

[재료] 간장 2큰술, 꿀 3큰술, 맛술 1큰술, 마늘 2컵

- 냄비에 물과 마늘을 넣고 5분간 중불로 삶아주세요.
- 삶은 마늘의 물기를 빼주세요.
- 팬에 간장, 맛술, 꿀 넣고 약한 불에 끓여주세요.
- 끓으면 마늘 넣고 중약불로 타지 않게 졸여주면 끝!
- 그 위에 견과류까지 넣어 버무려주면 더 맛있어요.

매운맛이 없고 달달해서 아이들도 잘 먹는 보약 같은 반찬이 됩니다.

김치 어묵 볶음우동

엄마가 3박 4일 동안 이모들과 여행 가서서 제가 아버지 저녁 식사를 차려
 드렸는데 아버지가 드시면서 가장 맛있다고 하신 메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생우동면, 양파, 어묵, 김치, 간장, 굴소스, 고춧가루, 김가루, 깨소금,
 참기름

- 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 채 썬 양파와 길게 썬 어묵을 넣고, 김치를
 한 주먹 넣어 볶아주세요.
- 간장 한 스푼과 굴소스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볶아준 뒤 중

이컵으로 물 한 컵을 넣어줘요. 생우동면을 넣고 조리줍니다.

- 김가루와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드시면,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서 박수가 막 나옵니다.

대패 삼겹 카레 우동

[재료] 카레, 대패삼겹살, 양파, 우동 사리, 우유

- 양파를 채 썰어 주세요.
- 팬에 대패삼겹살을 바삭 익혀주세요.
- 대패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에 양파를 넣고 갈색빛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고 나서 우유를 부어주세요.
- 강불에 놓고 끓어오르면 고체 카레를 넣고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세요.
- 우동면을 넣고 우동면이 풀어지게 젓가락으로 살살 건드려주며 저어서 양념이 잘 배어들면, 불 끄고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대패삼겹살을 올려주세요.

양배추 닭가슴살 볶음우동

우리 집에는 닭가슴살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들이 근육 만든다고 수시로 사 옵니다. 사 와서는 안 먹어요. 결국은 남편과 제가 해치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게 된 닭가슴살 요리가 있는데 아주 쉽고도 맛있어요.

[재료] 닭가슴살, 양배추, 파, 마늘, 우동면, 굴소스

- 기름에 파, 마늘 넣어 향을 내고, 양배추와 닭가슴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 굴소스 한 숟가락 넣고, 미리 살짝 데쳐낸 우동면을 넣어 같이 볶아주세요.
- 진간장은 간 보고 나서 추가하세요.

-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다른 날에는 고춧가루를 같이 넣어도 얼큰하니 맛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청양고추만 넣어도 매콤 깔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배추로 해도 맛있어요. 야채는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초간단 에그마요 샌드위치

[재료] 달걀, 마요네즈, 당근, 오이, 식빵

- 달걀 삶기 귀찮으시죠? 안 삶아도 됩니다. 볼에 달걀 몇 개 깨트리고 노른자를 툭 툭 터트려서 전자레인지에 삼사 분만 돌리고, 꺼내서 포크로 으깨고, 마요네즈 두세 숟가락 넣고 섞어주세요.
- 색감을 위해서 당근, 오이를 다져넣으면 훨씬 예쁘고 맛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촉촉한 식빵 사이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빵 양쪽에 딸기잼이나 마요네즈를 발라주면 더 맛있겠죠!

우유 달걀 카레

[재료] 달걀 2개, 마늘 4개, 버터 1조각, 카레 가루 3숟가락, 우유 2숟가락, 양파 1/4개, 물, 소금

- 마늘 썰고 양파를 채 썰어 주세요.
- 달걀에 우유, 소금을 넣고 풀어주세요.
- 달군 팬에 버터 녹이고 마늘, 양파를 볶아주세요.
- 양파가 투명해지면 물을 붓고, 물이 끓어오르면 카레 가루 넣고 풀어주다가 약불로 줄이고 달걀물을 부어서 섞어주세요.
- 부드럽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달걀 카레를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기쁜 소식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찬 바람이 불면서 느닷없이 봉어빵 생각이 났다. 한창 바쁠 때는 2시간씩 줄을 서야 살 수 있고 한 사람당 3개 정도로 제한한다는 유명한 집을 찾아 나섰다. 날이 좀 풀린 평일이라 그렇게까지 붐비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그곳의 네 가지 종류를 모두 다섯 개씩 샀다. 그리고 맛을 봤는데 내 입에는 피자 맛과 보수적인 옛 맛(팥+호두)이 좋았다.

‘생활의 달인’ 더빙하다 보면 맛집이란 맛집은 죄 알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곳이면 더빙 끝난 1시 반쯤 찾아 나서서 맛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어차피 월요일 밤 9시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당일 낮에 목소리를 입히니까, 월요일이 지나면 찾아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기다리다 지쳐서 순서가 되기 전에 돌아서게 될 테니까). 우리 세대 정도면 무얼 먹으려고 긴 줄을 서고 기다리는 일은 지친다.

호기심 덕에 봉어빵과 호떡 가게 여러 군데를 누볐다. 결론은 잔뜩 사서 귀가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 바삭 구운 따끈한 봉어빵

을 호호 불며 그 자리에서 먹는 것 이상은 없다는 사실! 봉투 속 봉어는 금세 축 늘어져 흐물거렸다.

한 번 관심을 가지면 끝까지 해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라 여러 맛집 정보를 얻어 홍대 앞과 영등포 쪽에도 갔다. 바에 앉아 젊은이들이 아주 조금씩 봉어빵을 뜯어 먹고 있어서 어떤 게 맛 나냐 물으니 다 맛있단다.

어떤 집은 봉어빵을 네모나게 굽고 봉어가 가운데에 조각처럼 튀어나와 있다. 가장자리는 꼭 옛날 전병처럼 바삭거려서 특색이 있었다. 여성시대 수요일의 ‘님과 함께’ 시간에도 스님, 신부님과 함께 간식으로 먹었는데 두 님께서도 즐거워하셨다.

재동초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눈꼬리가 내려앉았다며 안검하수 수술 예정이던 친구는 무서워서 점만 잔뜩 빼고, 나와 점심을 먹었는데 애들이 있는 미국 집으로 돌아간다고 더 자주 만났다. ‘있을 때 잘해’는 진리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양껏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최선이다.

올겨울 추울 거라며 패딩을 엄청나게 제작한 사람들도 매서운 추위 덕에 재고 쌓일 걱정 없어서 좋다 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람이 나와 엄마하고만 면담한 후에 나와 상담을 했다. 7년 세월 깔끔하게 관리해서 94세 치매 어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란다. 그래도 무릎이 아프셔서 2층에 샤워하러 올라가시기가 히말라야 등반 같을 것이다. 그야말로 기다시피 올라가시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다.

17세 노견 미미는 이를 12대 발치해서 체중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를 빼 후유증으로 하루 걸려 입원시키며 수액과 비타민을 맞고 저녁에 퇴원시켰다.

이 와중에 강변북로에서 어떤 이가 내 차를 두 번 들이받은 덕에 어깨, 등, 허리, 무릎까지 시원찮아 거의 매일 정형외과와 한방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도 기쁜 소식 하나. 내 책 <그럴 수 있어>가 2023년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그러저럭 나는 4권의 책을 낸 사람이 된 셈이다. (1994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2011년 <양희은이 차리는 시골밥상>, 2021년 <그러라 그래>, 2023년 <그럴 수 있어>)



2024년을 맞이하러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늘 그렇듯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몇 가지 다짐들을 적어본다.

먼저 해야 할 일!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운동하기
-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 하루에 명상 십분 씩 하기
- 기타 배우기
-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역시나 첫 번째는 운동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늘 미루는 것. 운동 앞에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의 승률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리라 다짐해 본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바로 기타 배우기. 몇 년 전에도 시도했었

는데 역시나 두 달 만에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름대로 목표한 바가 있기에 꼭 이룰 것이다. 여성시대를 진행한지 일 년 되는 날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 기타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당당이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시 혼자만의 다짐이다.

이번엔 하지 말아야 할 일!

-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술 마시지 않기
- 저녁 여덟 시 이후 먹지 않기
- 먹고 나서 소파에 눕지 않기
- 잠들기 전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기
-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 술김에 인터넷 쇼핑하지 않기

보다시피 해야 할 일들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 대부분이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 역시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험담하지 않기와 비교하지 않기와, 또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와, 이 세 가지는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 두 님과 매주 만나면서 다짐한 것들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배웠다.

지켜나가기 힘들다면 힘든 항목들이지만 그래도 2024년의 나를 또 한 번 믿어본다! 아자아자 파이팅!



IBK기업은행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는 후회 없이!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원도 보수 등 별도 발생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은행상인 설계번호 00024040020032219 유효기간 2024.06.17 후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66-5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통계좌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에 한하여 예금보통계좌와 달리 예금보통공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보장은 예금보통계좌 이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안정' '최고안전'을 의미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 가입액 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연금지출 계좌가 1개인 경우 중도 해지 시 1개월간 중도 해지금의 10%를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수익에 대해 7%의 소득세(15%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음)가 부과되며, *후 과세(과세) 및 과세방안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 금융소비자는 IRP(퇴직연금)로부터 중립적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공개,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공개주식지원

M&A 생태계 조성

본업과 관련 없는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금융·비금융업 관련 업무 겸업 금지)에 따라, 본업과 관련된 금융·비금융업 관련 업무 겸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업과 관련된 금융·비금융업 관련 업무 겸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업과 관련된 금융·비금융업 관련 업무 겸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업과 관련된 금융·비금융업 관련 업무 겸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